

# 리아호나

영원한 관점에서  
본 여성의 역할, 26쪽

신앙을 가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16쪽

청소년이 가르치도록 지도자가  
도울 수 있는 방법, 24쪽

성공 일화: 자립을 이루는 방법,  
36~41, 54쪽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져 너희로 신약을 분별하게 하였음이었요, 또 판단하는 길은 어두운 밤과 낮의 빛을 구별함같이 명백하여 너희가 완전한 지식으로 알 수 있음이니라."

모로나이사서 7:15



4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가족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꿈꾸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함께 돌보는 가족



표지  
앞표지: 어머니와 딸 사진, 매튜 라이어,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촬영.  
앞표지 안쪽 사진: © iStock/Thinkstock.  
뒤표지 안쪽 사진: 레슬리 로버츠.

특집 기사

- 16 주님의 뜻과 그분이 정하신 시기를 받아들이는 것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구주를 믿는 강한 신앙이란 비록 그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그분의 뜻과 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 26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의 삶  
샤론 유뱅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여성이 갖는 권한의 근원이 된다.
- 32 잃어버렸던 경전  
진 알 쿡 장로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셨다.

교회 본부 기사

- 8 2016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 10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함을 믿는다
- 12 단상:  
몰몬경을 좋아하는 열 가지 이유  
데이비드 플머
- 13 교회에서 봉사하며:  
훨씬 더 큰 선물  
크리스 디버
- 14 교회 소식:  
지역 회장단
- 24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청소년이 가르치도록 돕는다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 36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기적  
매튜 카울리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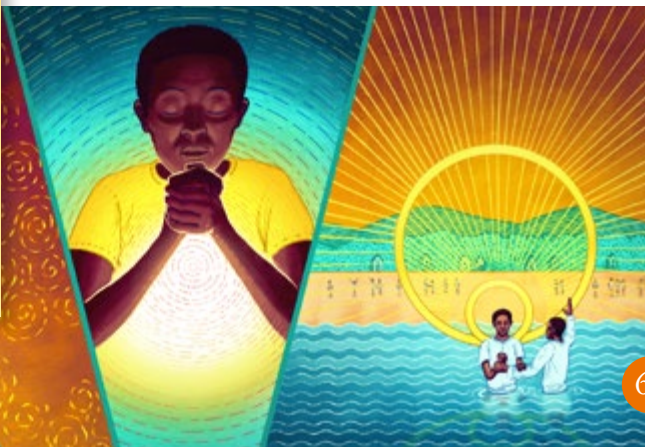
42

**42** 그리스도 안에 내린 뿌리  
엘 워트니 클레이튼 장르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한 삶의 열쇠가 되신다.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면 삶의 시련들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

**49** 여러분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캐시 키프 클레이튼  
여러분의 변치 않는 영원한 위상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 피해야 할 세 가지.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쿠키는 무엇인가요?



64

**50** 나를 구해 준 남동생  
브리트니 앤 하먼  
남동생이 열두 살이 되었을 때 함께 성전에 가기 시작하자고 권유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몇 년 후에 남동생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53** 포스터: 휴대 전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54** 미래를 향한 도약  
미리엄 베이  
교회에서 열리는 자립 관련 수업을 들은 후, 열한 살의 한 소녀가 자신의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트램펄린 사업을 시작했다.

**58** 질의응답  
교회에 저 말고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60**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티모시 제이 다익스 장르  
연설 대회에서 수술실에 이르기까지,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해 내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3**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합당성을 유지하는 방법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64** 나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스마엘 에제키엘 플라코 알몬테  
오랜 시간 동안 진리를 찾아 헤맨 끝에, 나는 친구를 따라 세미나리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



68

**66**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랜디 디 핑크 장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8** 침묵이 담긴 작은 병  
레이 골드럽  
게이지는 할아버지가 주신 빈 병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몇 주 후 삼촌 장례식에서 그 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70** 두 손과 마음, 그리고 미소  
로라 굿리치  
리디아는 엄마처럼 아름다워지고 싶었지만, 립스틱이 없었어요. 엄마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려 주셨답니다.

**72** 사도들의 답변:  
가족은 왜 중요한가요?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르

**73** 우리들 이야기

**74** 물몬경의 영웅들:  
사무엘은 간증했어요

**75** 나는 물몬경을 읽을 수 있어요.

**76** 물몬경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 가르친 사무엘

**79** 색칠하기  
인터넷 활용하기

2016년 8월호, 제53권, 제8호

리아호나 13288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편집위원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헬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정원화: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콕, 디 도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렌슨, 로널드 에이 레스번드, 게리 알 스티븐스, 데일 지 랜런드

편집자: 조셉 더블유 시타디

부편집자: 제임스 비 마르티노, 캐럴 에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에쉬턴, 랜달 케이 베네트, 크레이그 에이 카든, 웨일 에이 에스플린, 크리스토퍼 콜든, 더글라스 디 홀스, 래리 알 로렌스, 캐롤 엠 스티븐스

관리 책임자: 피터 에프 에번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트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메간 사이츠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니 비에티,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드, 매튜 디 플라톤, 로리 플러, 게렛 에이치 가프, 라란 포터 건트, 질 크리스틴 해링, 살러 라카발, 마이클 알 로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 조슈아 제이 퍼키, 잰 핀보로우, 리차드 엘 플루, 민디 앤 셸루, 폴 뎀덴버그, 마리아 윌슨

편집 인턴: 린 크랜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캄벌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클린 윙클러, 예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레이철 스티스,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너호스트

디자인 인턴: 켈시 마르티네즈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관리자: 제인 엘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스프 브릿지, 줄리 버넷, 캐티 던던,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날슨, 가일 타데 러퍼디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store.lds.org에 접속하거나 해당 지역 교회 부부 센터나 워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 신청 및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60호, 제53권, 제8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6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세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iahona-korea@ldschurch.org](mailto:iahona-korea@ldschurch.org)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g](http://www.lds.org)로 "물품신청"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바람주: (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iahona.lds.org](http://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iahona@ldschurch.org](mailto: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비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6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와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ugust 2016 Vol. 40 No. 8. 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이다.



“물문경을 좋아하는 열 가지 이유”, 12쪽: 가족이 함께 이 기사를 읽어 보고 각자 그들이 물문경을 좋아하는 이유를 적어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 가족 각자가 그 목록의 내용 및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문경 성구를 나누어 보게 하는 활동을 고려해 본다. 가족이 함께 정기적으로 물문경을 읽으면서 이 책을 좋아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아보도록 목표를 세울 수도 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 66쪽: 거룩한 곳에 머물기를 선택하라는 핑크 장로의 경험담을 읽고 67쪽에 나오는 관련 활동을 해 본다.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 각자가 교회나 성전 안에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도록 돕는 일에 성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토론해 본다.

## 인터넷 활용하기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http://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facebook.com/iahona.magazine](https://www.facebook.com/iahona.magazine)에서 영감에 찬 메시지, 가정의 밤 제언, 그리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본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르침, 13, 24

가족 역사, 50

가족, 4, 7, 50, 72

간증, 63, 74

개종, 32, 64

경전, 32

교회 참석, 50, 66

그리스도의 교리, 26

기도, 32, 60, 64

기술, 53

기적, 80

물문경, 12, 63, 74, 75, 76

봉사, 13, 54, 70

부름, 13

부채, 39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36

사랑, 4, 70

성신, 26, 54, 66, 68

성전 사업, 4, 50

세미나리, 64

속죄, 4, 16, 42

순종, 10, 42

식량 비축, 40

신권 축복, 16, 80

신성한 본질, 26, 49

신앙, 16, 38, 42, 60, 80

십일조, 79

예수 그리스도, 12, 16, 42, 73,

75, 76

외설물, 63

육체적 건강, 16, 37

자립, 36, 37, 38, 39, 40, 41, 54

지혜의 말씀, 37, 63

청소년, 24

취업, 38

친구, 58, 64

합당성, 63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가족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꿈꾸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으뜸은 영생입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영생이라는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면전에서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결합된 상태는 하나님의 왕국 중 가장 높은 왕국인 해의 왕국에서만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 느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리로 알 수는 있지만 아직 가슴으로 느껴 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삶에서는 보았을 법도 합니다. 또 우리 중에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 혹은 사랑을 주고받던 조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후, 가족의 사랑을 더욱 피부에 와 닿는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무척 사랑했고, 지금도 가슴 시리게 다시 안아 보고 싶은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한 번 더 느껴 보기를 소망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시는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25 참조) 그래서 그분은 당신 아들을 선물로 주시어, 가족의 결합이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주께서 사망의 줄을 끊으셨으므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신앙과 회개를 통하여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은 가족이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결합되는 곳입니다.

구주께서는 신권 열쇠들을 회복하시고자 조셉 스미스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이 열쇠들에는 인봉 권능이 수반되며, 이로써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 곧 가족이 영원히 함께 결합된 가운데 누리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 중 3분의 1이 영의 세계에서 그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부족하여, 그런 다음에는 공공연한 모반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은사의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할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지내던 전세에서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여 필멸의 육신을 갖는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췄으나, 영생을 얻기 위한 중요한 선택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회복된 복음을 찾는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자격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킬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충실함으로 견딜 때, 성신은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영원히 가족과 함께 사는 영생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확증해 주고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다는 확신에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이 실낱처럼 보이거나 심지어 스러져 가는 소망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영생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자신이 지금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선지자께서는 제게 평안의 근원이 되는 조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선택 때문에



저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던 차였습니다.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잘못된 문제로 고민하시는군요. 그저 해의 왕국에 합당하도록 생활하세요. 그러면 형제님 가족의 상황은 형제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결혼과 자녀 때문에, 혹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영생을 향한 소망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분들께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영의 자녀인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 그분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동안, 그분들은 우리 마음에 영생을 바라는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이 작용하고 성신이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간절히 바라시듯 지금도,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서도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해의 왕국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가족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약속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가족에 대한 소망에 감사했던 때에 관해 이야기하며 시작할 수 있다. 그들에게 영원한 가족에 감사했던 때를 떠올려 보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런 다음,

“가족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약속이 그들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해의 왕국에 더욱 합당하게 생활할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권한다.

## 영원한 행복 나누기

**복**음에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에게 가족과 영원히 함께할 훌륭한 기회가 있다. 세상에 짓눌릴 때마다 그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시는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25 참조) 그래서 그분은 당신 아들을 선물로 주시어, 가족의 결합이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은 지금 살아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며, 우리가 돕기만 하면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적용된다. 조상들은 지금 영의 세계에 있으며,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준비하여 그들을 대신해 성전 의식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조상들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 너무 바쁠 수도 있고, 성전에



자주 가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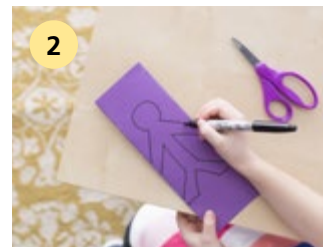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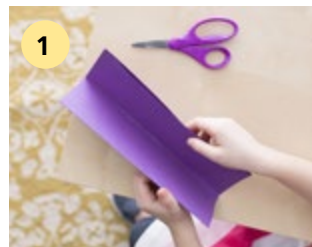
그러나 다행히도 다른 방법으로도 조상을 도울 수 있다. 가족 역사 사업을 하거나 색인 작업을 하거나 성전에 가는 부모들을 위해 아이들을 돌보는 일 등으로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도우며 주님께 봉사한다. 그리고 휘장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가족에 관한 소망을 가져다준다.

## 어린이

### 가족은 영원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가족을 인봉할 수 있는 신권 권능의 회복 덕분에 우리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의 어떤 점을 좋아하나요? 다음과 같이 가족을 기억하기 위한 종이 사슬을 만들어 보세요.

1. 종이를 반으로 접고 다시 한 번 반으로 접어서 긴 띠를 만듭니다.
2. 그 긴 띠에 사람을 그리되, 그 사람의 손이 양쪽 끝 선에 닿게 그림니다.
3. 사람 모양을 오립니다. 양쪽 끝의 접힌 부분에 닿아 있는 사람 손은 자르지 않습니다.
4. 종이를 펼칩니다. 각 사람 모양을 여러분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각 가족에 대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점을 쓰거나 그림니다.
5. 가족이 더 많다면 종이 사슬을 더 만들어서 테이프로 연결합니다!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고 여러분이 방문 교육을 통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ids.org](http://reliefsociety.lids.org)에서 알아볼 수 있다.



## 신앙, 가족, 구제

### 이야기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사랑하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잊지 못할 가르침을 준 어린 시절의 경험을 언급했다. 크리스토퍼슨 가의 형제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는 암으로 광범위 절제 수술을 받았고, 그런 탓에 오른팔을 쓰려면 극심한 통증을 겪어야 했다. 남자아이들만 있는 가정이라 다림질할 옷가지가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다림질을 할 때면 종종 손을 멈추고 침실로 가서 고통이 가라앉을 때까지 울곤 했다.

사태를 인식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아버지는 쉽게 다림질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사기 위해 일 년 가까이 아무도 모르게 점심을 거르며 돈을 모았다. 아버지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들들에게 가족을 보살피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러한 애정 어린 상호작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희생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행동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잘 알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아빠는] 진정한 대장부야.’라고 말하곤 합니다.”<sup>4</sup>

## 함께 돌보는 가족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sup>1</sup>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가정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배우는 하나님의 실험실이 되어야 합니다.

...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충실하고 그들의 자녀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으로 생각하고 대하기를 바라십니다.”<sup>2</sup>

야곱은 물몬경에서, 레이맨인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사랑했기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니파이인들보다 더 의로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야곱서 3:7 참조)

가정에 사랑과 화합을 불러오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다. 친절한 말은 성신을 불러온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는 다음



질문을 음미해 보도록 권고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친절한 말들을 서로 [합니까?]'”<sup>3</sup>

### 보충 성구

로마서 12:10; 모사이야서 4:15; 교리와 성약 25:5

### 생각해 볼 점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영을 불러올 수 있는가?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2. 러셀 엠 넬슨, “구원과 승영”, *리야호나*, 2008년 5월호, 8쪽
3. 린다 케이 버튼, “우리는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 *리야호나*, 2015년 5월호, 31쪽.
4.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대장부가 됩시다”, *리야호나*, 2006년 11월호, 46쪽.

# 2016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6년 4월 연차 대회를 다시 읽으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다.



교리 살펴보기

## 죄 사함

“침수로써의 침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 그리고 성찬, 이 의식들은 서로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구속을 향한 발전 궤도를 이루는 요소들로서, 긴밀한 상호 관계를 맺으며 누적되어 갑니다. 다음 단계의 의식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목적 의식과 열망과 성취가 향상되고 확장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구주의 속죄와 복음의 의식들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힘써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죄 사함을 항상 간직하여”,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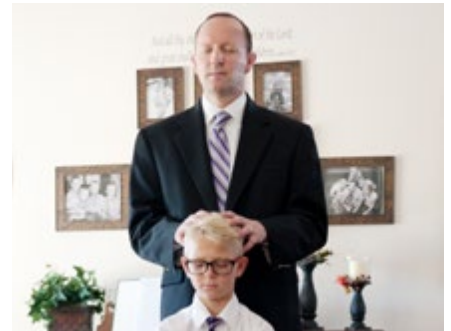
## 선지자의 약속



## 영원

“오늘 저녁 저는 …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승영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발전하고 진보하여 그분처럼 되게 할 계획을 제정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계획으로 우리는 필멸의 삶을 살며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율법과 신권의 의식에 순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은사인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영원한 가족”,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81쪽.



## 남성의 신성한 역할

**때**로는 여러 연사가 같은 복음 주제로 말씀을 하기도 한다. 다음은 남성의 신성한 역할에 관해 세 연사가 전한 내용이다.

- 남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대하신 방식으로 아내[를] … 대[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영원한 가족”, 83쪽.
- 신권 소유자: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의] 특권에 걸맞게 생활하기를 …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날에는 오직 주님에게서 가르침을 부지런히 구하여 신권을 신중하게 받아들인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인도하며, 보호하고 강화하고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신권 권능의 값”, 67~68쪽.
- 아버지: “아버지의 역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이 필멸의 세상에서는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그 신성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부성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는 자녀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삶과 안전의 토대라 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재확인시키며 강화해 줍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아버지”, 94, 95쪽.

##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훌륭한 일화

일화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주의를 끈다. 다음은 대회에서 소개된 여러 일화 중 몇 가지 예이다.

- 사랑이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과 목련꽃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닐 에프 메리엇, “우리가 어찌할꼬”, 10쪽 참조.
- 헤일즈 장로는 왜 스테이크 대회 후에 모든 사람과 악수하기 위해 머물렀는가? —로버트 디 헤일즈, “성신”, 105쪽 참조.
- 이벤테 부킹고는 열한 살 때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세 형제가 실종된 열한 살의 난민 소녀였다. 이벤테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는가? —린다 케이 버튼, “나그네 되었을 때”, 13쪽 참조.
- 가족 회원이 아닌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는 후기 성도 어린이들의 이런 일화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가? —닐 엘 앤더슨, “누구든지 이들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49쪽 참조.

“순종은  
신앙의 생명선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그분은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03쪽.

conference.lds.org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다.

#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함을 믿는다

**십**계명은 구약전서(출애굽기 20:1~17 참조)에 나오지만, 후기 성도는 십계명이 비단 구약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빈아다이는 몰몬경에서 십계명을 가르쳤으며(모사이야서 12:33~36; 13:13~24 참조),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를 위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십계명을 다시 계시해 주셨다.(교리와 성약 42:18~19; 59:5~13 참조)

오늘날 여러 사회의 사람들이 십계명을 경시하지만 우리는 십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믿는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한때 적절치 못하고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던 행동이 이제는 용인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일 만한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

비록 세상은 변했으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이지만 어떤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셨을 때처럼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sup>1</sup>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받은

신성한 가르침을 생활에서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가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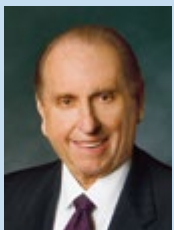
십계명은 두 가지 태도, 곧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기본이 되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 또한,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이나 살인,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선지자를 통해 계시를 주신 덕분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더 많이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십계명은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훌륭한 출발점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sup>2</sup> ■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2:37-40에서 구주께서 주신 답을 찾아본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2, 83쪽.
  2. 캐롤 엠 스티븐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120쪽.

##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의 행복에 장애물이 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등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명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해지며, 덜 복잡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계명을 지키라”,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83쪽.

오늘날에 십계명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애굽기 20:3) 오늘날에는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라는 유혹을 받을 일은 거의 없지만, 우리는 명성이나 물질적 소유 등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한다.(니파이후서 9:30 참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애굽기 20:8)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법”(교리와 성약 88:67)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굽기 20:12) 조상과 부모,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기 포함될 수 있다.



“간음하지 말라”(출애굽기 20:14) 깨끗한 생각을 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교리와 성약 42:23 참조)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7) 탐내는 마음은 무엇보다 불만족과 불행으로 이어진다.

# 몰몬경을 좋아하는 열 가지 이유

데이비드 풀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증거로서, 이 놀라운 책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개념과 교리를 가르쳐 준다.

**나**는 몰몬경을 좋아한다. 전반적으로는,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르며 그것을 읽는 이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는 이 책의 힘을 좋아한다. 그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이 책을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sup>1</sup>이라고 언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좋아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이 또 있다. 그중에서 열 가지를 꼽아 보자면 다음과 같다.

몰몬경은 ...

1. 역사의 한 시대에 씌었으나 다른 시대의 독자들, 즉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 몰몬서 8:16, 34~35 참조.
2. 마지막 날에 대혼란을 퍼트리려는 루시퍼의 방법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니파이후서 28:3~29 참조.
3.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인간의 연약함은 강하게 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한다. 이터서 12:27 참조.
4.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과 같아야 하며 구체적인 단계를 거쳐 얻는 신성한 은사라고 정의해 준다. 모로나이서 7:43~48

- 참조.
5.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말해 준다. 니파이후서 2:11~13 참조.
  6. 어떤 상황에서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설명한다. 엘마서 34:11~30 참조.
  7. 이사야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은 두 무리의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다. 니파이후서 25:4~8; 몰몬서 8:23 참조.
  8. 구약의 예언에서 언급되었듯이,

-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동반 증거로서 쓰이고 있다. 에스겔 37:15~20; 니파이후서 28:29; 29:3~8 참조.
9.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기도한다면 이 책이 그분의 말씀임을 드러내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 모로나이서 10:4~5 참조.
  10. 구주께서는 고통을 겪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역경을 온전히 이해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힘겹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다고 가르친다. 엘마서 7:11~13 참조.



무엇보다 내가 몰몬경을 사랑하는 것은 이 책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간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님과 성약을 맺고 지킬 때, 결국 그분께서는 그들 모두를 구속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나와 있기에 이 책을 좋아한다. 몰몬경은 현대의 기적이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주

1. 조셉 스미스, 몰몬경 소개.

# 훨씬 더 큰 선물

크리스 디버

레이놀즈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초등학교에서 보낸 마지막 해에 레이놀즈 형제님은 우리의 새로운 교사가 되셨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얼굴의 레이놀즈 선생님은 대공황 이야기며,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에 복역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처음에 나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루하기도 했고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었으니 말이다.

한번은 우리가 공과 시간에 말썽을 부리던 참이었다. 레이놀즈 선생님은 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그저 더 나은 태도를 보일 것을 부탁하시면서 내 가장 좋은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선생님께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레이놀즈 선생님의 특별한 점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우리를 깊이 염려하셨고,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

레이놀즈 선생님은 끊임없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주셨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이 발휘하는 힘에 대해 가르치실 때 선생님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진정한 모험담이 되어 우리의 상상력에 영감을 불어 넣었고, 그 이야기 덕분에 우리는 구주께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선생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가르치시며 조셉 스미스도 한때는 우리 같은 어린 소년이었다고 간증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큰 기대를 걸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다. 레이놀즈 선생님은 우리가 조셉 스미스의 모범을 따르고 구주 곁에 머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몇 년 후 고등학생이 된 우리는 레이놀즈 형제님 맥 살구나무에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나무를 다듬어 드렸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나뭇가지를 치는 데는 여러 시간이 걸렸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레이놀즈 선생님께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 해에 레이놀즈 선생님께서 표준 경전이 새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선생님 경전은 오래돼서

모서리가 다 접혀 있었고 제본도 헐거워진 상태였다. 우리는 돈을 모아 가족으로 된 아름다운 표준 경전 합본을 사서 표지에 선생님 이름을 새겼다. 그리고 와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선생님께 선물로 드렸다. 철없이 어린 소년이었던 우리가 어느새 커서 선생님께 제법 의미 있는 일을 해 드리는 것을 보시고는 환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몇 년 뒤 대학에 진학한 후, 레이놀즈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레이놀즈 자매님과 가족들을 방문하여 선생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자제들과 손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이렇게 훌륭한 분을 알고 지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지 깨닫게 되었다.

레이놀즈 자매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다. “남편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아주 아주 사랑했지요.”

올바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레이놀즈 선생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맺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우리는 레이놀즈 선생님 맥 나무를 다듬어 드리고 새 경전을 선물로 드렸다. 그러나 선생님은 훨씬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 없는 사랑 말이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산다.



# 교회 소식

news.lds.org에서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볼 수 있다.

## 새로 지명된 지역 지도자들

**제** 일회장단은 2016년 8월 1일 화요일자로 지역 지도자 임무 변경을 발표했다. 지역 회장단의 모든 구성원은 칠십인 총관리 역원이다.

칠십인은 계시에 따라 부름받으며,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전 세계에서 성역을 베푸는 십이사도 정원회를

보조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필멸의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칠십인을 부르셨고, 열두 사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 말을 듣는 자는 곧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며 그들을 “앞서” 보내셨다.(마태복음 10:1, 16~17;

누가복음 10장 참조)

1835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칠십인이 칠십인의 수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그들을 감리할 일곱 사람의 회장을 가짐은 칠십인의 제도”(교리와 성약 107:93)라고 계시하셨다. ■

### 칠십인 회장단



엘 휘트니 클레이튼  
전 지역 보조



도널드 엘 홀스트롬  
북미 북서 북미 서



리처드 제이 메인즈  
북미 남동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유타 북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남



올리세스 소아레스  
아이다호  
북미 중앙



런 지 로빈스  
북미 남서



게릿 더블유 공  
북미 북동

### 아프리카 동남



스탠리 지 엘리스  
제1보좌



케빈 에스 해밀턴  
회장



에스 마크 파머  
제2보좌

### 아프리카 서



마커스 비 내쉬  
제1보좌



터렌스 엠 빈슨  
회장



벤 피 스탬펠  
제2보좌

### 아시아



치 흥 (썬) 웅  
제1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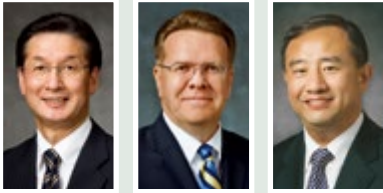
랜디 디 펑크  
회장



데이비드 에프 에번스  
제2보좌



### 북 아시아



가즈히코  
야마시타  
제1보좌

스콧트 디  
와이팅  
회장

최윤환  
제2보좌

###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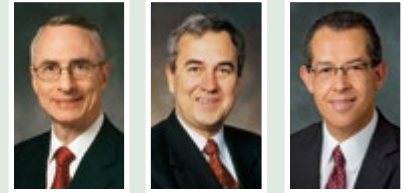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트스  
제1보좌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회장

더블유 마크  
배셋  
제2보좌

### 카리브 해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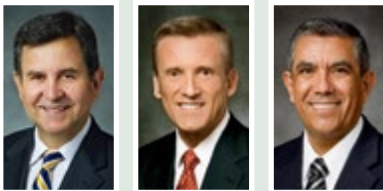


클라우디오 디  
지빅  
제1보좌

월터 에프  
곤잘레스  
회장

우고 이  
마르티네스  
제2보좌

### 중미



에이드리언  
오초아  
제1보좌

케빈 알 던컨  
회장

호세 엘 알론소  
제2보좌

### 유럽



폴 브이 존슨  
제1보좌

패트릭 키아론  
회장

게리 비 사빈  
제2보좌

### 유럽 동



제임스 비  
마르티노  
제1보좌

브루스 디 포터  
회장

래리 에스 캐처  
제2보좌

### 멕시코



아날포  
발렌주엘라  
제1보좌

폴 비 파이퍼  
회장

라파엘 이 피노  
제2보좌

### 중동/아프리카 북



래리 알 로렌스  
교회 본부에서 관리함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 태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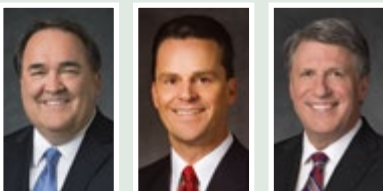


에스 기포드  
닐슨  
제1보좌

오 빈센트  
할레크  
회장

크레이그 에이  
카든  
제2보좌

###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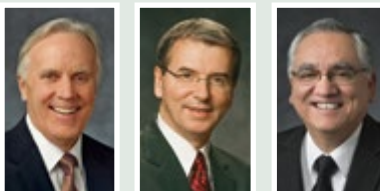


앨런 디 헤이니  
제1보좌

세인 엠 보웬  
회장

에번 에이 슈무츠  
제2보좌

### 남미 서북



로렌스 이  
코브리지  
제1보좌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회장

휴고 몬토야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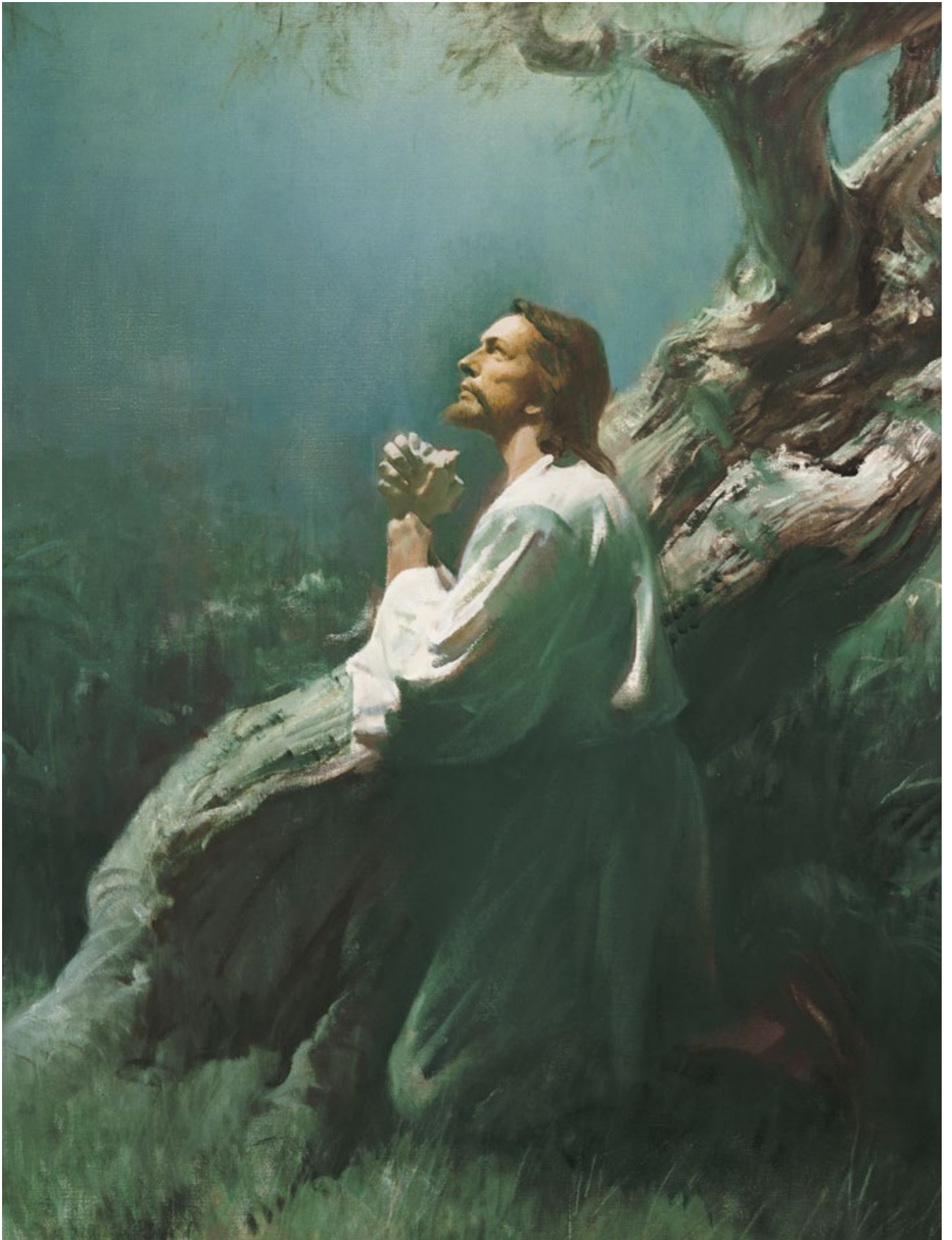
### 남미 남



앨런 에프 패커  
제1보좌

호세 에이  
테제이라  
회장

마크 에이  
브래그  
제2보좌





# 주님의 뜻과 그분이 정하신 시기를 받아들이는 것

구주를 믿는 강한 신앙이란 우리 삶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께서 정하신 시기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그 결과가 우리가 바랐거나 원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분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1981년부터 2004년까지 23년간 봉사하셨습니다. 맥스웰 장로님의 가르침에 담긴 영적인 힘과 충실한 제자로서 보이신 모범은 구주의 회복된 교회 회원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축복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1997년 10월에 저는 아내와 함께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당시 리스 대학)에서 맥스웰 장로님 부부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맥스웰 장로님은 학생들과 교직원 및 교수진이 모이는 영적 모임에서 말씀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초반에 맥스웰 장로님은 백혈병으로 46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화학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봄과 여름 내내 이어진 재활과 치료로 상당히 호전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스버그에 오실 당시 그분의 신체적인 힘과 기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잔과 저는 맥스웰 장로님 내외를 공항에서 맞이한 후 휴식을 취하시도록 저의 집으로 모셨고, 영적 모임 전에 가벼운 점심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장로님께 병고를 겪으며 어떤 교훈을 배우셨는지를 여쭙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파고드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그분의 대답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데이브, 겁을 먹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네.”



**이 부부가 치유받고자 하는, 자신의 강렬하고 이해할 만한 소망을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모사이야서 15:7) 되도록 하려는 것을 목격하면서 제 신앙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대답은 맥스웰 장로님이 항암 화학 치료 동안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직접 체득하신 원리였습니다. 1997년 1월, 1차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예정되었던 날, 맥스웰 장로님은 아내를 바라보며 손을 잡으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겁을 먹고 물러서지 않길 바랄 뿐이요.”

맥스웰 장로님은 197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들을 겪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물러서지 않도록’(교리와 성약 19:18), 즉 물러서거나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쓴 잔을 쓰지 않게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sup>1</sup>

구주께서 무한하고도 영원한 희생을 치르며 겪어야 하셨던 고통을 알려 주는 성구들이 제게 더욱 가슴 아프고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19)

구주께서는는 겻세마네 동산에서나 골고다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맥스웰 장로님 역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이 강한 사도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으며, 그 결과 필멸의 세상에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축복받아 사랑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간증했습니다. 생애를 마감하던 마지막 몇 년간의 그분의 삶은 말과 행동을 통해 모범적으로 보여 온 헌신적인 제자의 삶을 더욱 강조하는 느낌표와도 같았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맥스웰 장로님과 같은 영적인 역량과 경험, 위상을 지니신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계획을 이해하고, 자신감 있고 품위 있게, 그리고 위엄을 지키며 중병이나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축복이 총관리 역원이나 교회의 선택된 일부 회원에게만 국한되어 예비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려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은 이후, 저는 지명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충실하고, 용감하며, 용맹한 후기 성도들을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젊은

남성과 여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들은 제 삶에 축복이 되었으며, 저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게”(모사이야서 15:7) 하는 것에 대해 영적으로 중대한 교훈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가 담긴 실화입니다. 그렇지만 관련 인물의 실명을 사용하지는 않겠고, 허락을 받아 그들의 개인 일지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존은 합당한 신권 소유자이며 전임 선교사로서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후 의롭고 훌륭한 헤더라는 젊은 여성과 데이트를 했고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현세와 영원에 걸쳐 함께 인봉이 되던 날, 존은 23세였고 헤더는 20세였습니다.

성전 결혼을 하고 약 3주가 지난 후, 존은 골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에서도 암 덩어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존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다. 암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도 그렇지만,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남편으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했다. 나는 우리 새 가족의 부양자이자 보호자이다. 그 역할을 시작하지 3주가 지난 지금,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헤더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나는 기억한다. 나는 남편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병원 대기실에서 결혼식 감사장을 적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그릇이며 조리 기구가 더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성전 인봉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 의사들은 남편의 생존율이 3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나는 우리가 충실하다면 영원히 함께할 가능성은 100퍼센트라는 것을 알았다.”

한 달 후, 존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존은 그 경험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치료를 받자 내 평생에 없었던 고통이 찾아왔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체중은 19킬로그램이나 줄었다. 몸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다. 항암 화학 요법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항암 화학 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내 삶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오르내리며 요동치는 롤러코스터 같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헤더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게 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지켰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헤더는 생각과 느낌을 매일 기록해 나갔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밤을 홀로 보낸다는 사실을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매일 밤 병실에 있는 작은 침상에서 쪽잠을 잤다. 낮에는 많은 친구와 가족들이 오갔다. 하지만 밤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의아해하기도 했다. 때로 우울한 생각에도 빠져들고, 존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알았다. 나는 더욱 자주 위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주께서는 내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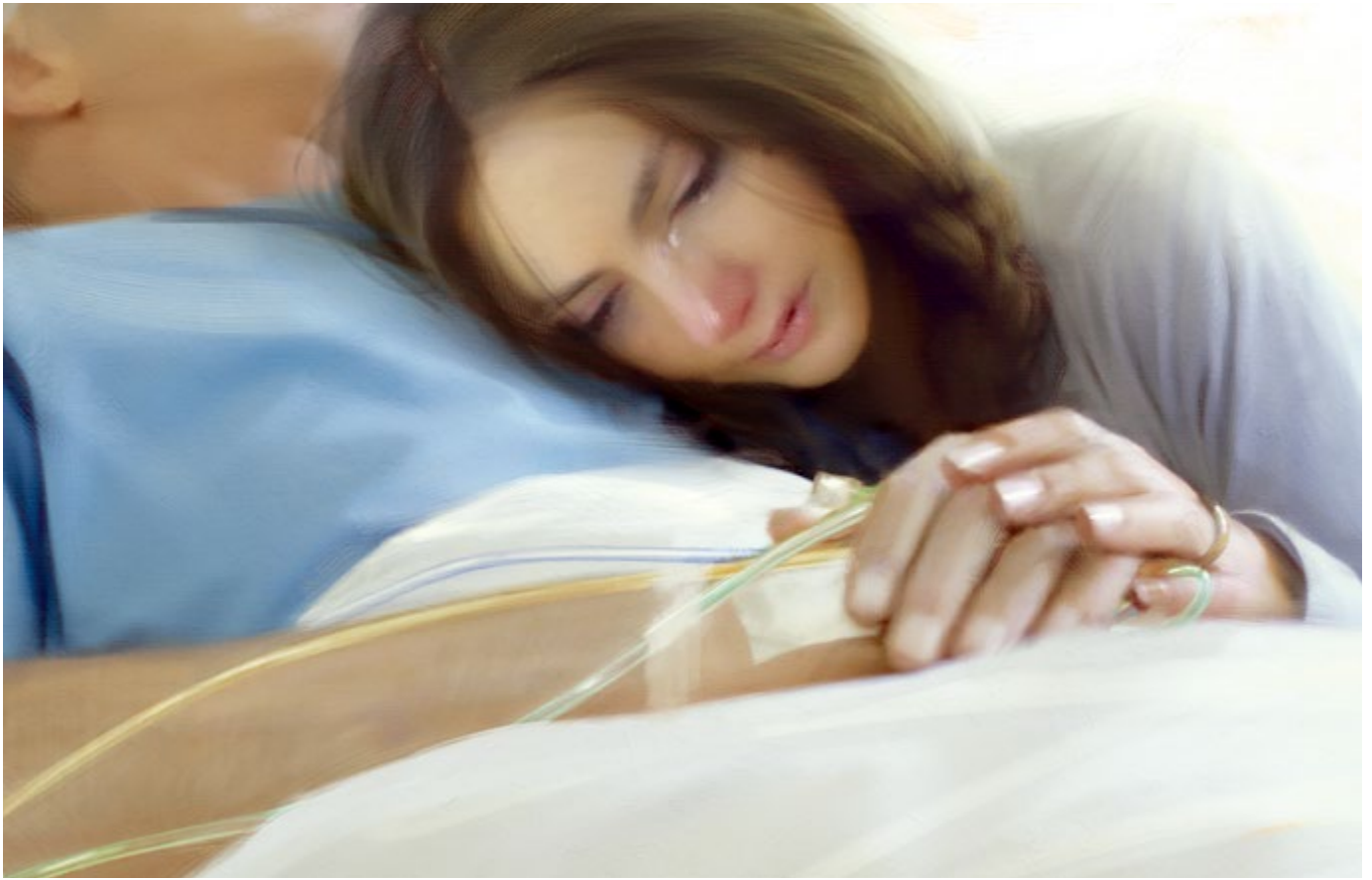
3개월 후 존은 다리에서 커다란 종양을 떼어 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에 저는 병원에 있는 존과 헤더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선교 임지에서 처음 존을 만났던 이야기, 그들의 결혼, 암, 현세의 삶에서 겪는 시련으로 배우는 중요한 교훈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존이 제게 신권 축복을 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줄 수는 있지만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물을 계획도 없었고 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존, 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앙이 있습니까? 만일 젊은 나이에 죽어 영의 세계로 옮겨져 그곳에서 계속 봉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낫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신앙이 있습니까?”

경전에서 주님 또는 그분의 종들은 치유하는 영적 은사를 자주 행하셨고(고린도전서 12:9; 교리와 성약 35:9; 46:20 참조),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치유되리라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다.(사도행전 14:9; 제3니파이 17:8; 교리와 성약 46:19 참조) 저는 존과 헤더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만일 이 선한 젊은이가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한 가지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 뜻에 삼키운 바”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부부가 모든 영적 투쟁 중에서도 가장 힘겨운 투쟁인,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은 감사와 감탄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축복은 먼저 이 용감한 부부가 낫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앙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과 헤더는 우리가 원하고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축복을 조금하듯 요구하고 설 새 없이 고집하는 “육에 속한 사람”(모사이야서 3:19)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성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헌신적인 제자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원리를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주를 믿는 강한 신앙이란 그분의 뜻과 그분이 정하신 시기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그 결과가 우리가 바랐거나 원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존과 헤더는 분명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치유를 바라고, 갈망하고, 간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들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모사이야서 3:19)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꺼이 “[자신들의]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고[자]”(욘나아서 1:26) 하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존과 헤더, 그리고 제계 당혹스럽게 느껴졌던 그 의문은 복음 원리들 가운데 걸음으로는 모순되게 보이는 역설 중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구주의 이 훈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태복음 10:39) 주님은 또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마태복음 19:30) 주님은 후기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또 네 말로 인하여 많은 높은 자들이 낮아질 것이요, 또 네 말로 인하여 많은 낮은 자들이 높아질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12:8) 따라서 낫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앙을 갖는 것은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복음 원리들의 강력한 실례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듯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역설적인 복음 원리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제3니파이 14:7 참조)

충분한 시간 동안 제 질문을 깊이 생각하며 헤더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존이 제게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베드나 장로님, 전 죽고 싶지 않습니다. 헤더를 남겨두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영의 세계로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어린 부부가 모든 영적 투쟁 중에서도 가장 힘겨운 투쟁인,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은 감사와 감탄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부부가 치유받고자 하는, 자신의 강력하고 이해할 만한 소망을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모사이야서15:7) 되도록 하려는 것을 목격하면서 제 신앙도 강화되었습니다.

존은 우리의 대화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적었습니다. “베드나 장로님은 생존하는 것보다 겁을 먹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맥스웰 장로님의 생각을 우리와 나누셨다. 그런 후 베드나 장로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다. ‘나을 것이라는 신앙이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낫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앙이 있습니까?’ 내게 이 개념은 생소했다. 본질적으로 베드나 장로님이 묻고자 하신 것은, 만일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그 뜻을 받아들일 신앙이 있는지, 만일 죽음을 통해 영의 세계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면, 순종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었다.”

존은 계속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낫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앙을 갖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본능에 반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나와 아내의 생각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를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결과가 어떻든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신앙,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낫게 해 주세요.’에서 ‘저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일 신앙을 주시옵소서.’로 바뀌었다.

베드나 장로님은 사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축복하시면 내 몸의 원소들이 재구성되어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게 되거나 극적인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런데 그날 베드나 장로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그분이 전하는 축복의 말씀이 아버지와 장인, 그리고 선교부 회장님이 하셨던 축복과 거의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 머리 위로 누구의 손이 올려지든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권능은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뜻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한 그분의 권한을 받은 종들을 통해 알려진다.”

헤더는 이같이 적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가득한 날이다. 나는 베드나 장로님이 남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암을 완전히 낫게 해 주실 것이라고 굳건히 믿었다. 남편이 신권 권능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낫지 않는다 해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신앙에 대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다. 단 한 번도 남편을 잃는 것이 주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차원적인 신앙이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낫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하자 마침내 내 마음에서

걱정이 사라졌다. 그런 신앙이 생기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시며, 나와 존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하실 것임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축복을 준 후, 여러 주, 여러 달,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존의 암은 기적적으로 차도를 보였습니다. 존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찾았습니다. 존과 헤더는 계속 관계를 강화시켜 나갔고 함께하는 삶을 즐기워했습니다.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존과 헤더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암이 재발하여 항암 화학 요법이 재개되었고,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헤더와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실망스러웠을 뿐 아니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경험에서 저희가 배우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더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왜 암이 재발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강한 신앙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산이 옮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들고  
아픈 모든 사람이  
치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약전서를 읽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와 사도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배가 전복될까를 두려워하며 제자들은 구주께로 가서 여쭙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 심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는데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읽어 나가다가 대답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그분은 손을 뻗어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나는 이 기사를 정말 믿는가? 그날 구주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음을 정말 믿는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읽기 좋은 이야기에 불과한가?'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으며, 그분께서 실제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음을 알기에, 그분께서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그 둘을 조화롭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별개로 생각했고, 때로는 그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된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 신앙은 왜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 후에 저는 신앙을 갖는 것이란, 적어도 제 상황에서는, 그분이 저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이뤄질지는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신앙과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두 가지 원리가 공존하게 되면서 더 큰 위안과 평안함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며, 기적들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보며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만약 산을 옮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며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의로움과 신앙은 분명, 산을 옮기는 데 중요한 몫을 합니다. 병든 자와 귀면 자, 걷기 힘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의로움과 신앙은 분명 그러한 치유를 받는데 중요한 몫을 합니다. 따라서 강한 신앙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산이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병들고 아픈 모든 사람이 치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상대되는 것이 축소된다면, 모든 병폐가 제거된다면, 아버지 계획의 주된 목적들은 좌절될 것입니다.

필멸의 삶에서 배우게 될 많은 교훈은 경험을 하고 때로 고통을 겪음으로써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필멸의 세상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원수와 맞서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기를 바라시며, 이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되어야 할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또한 신뢰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필멸의 세상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원수와 맞서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기를 바라시며, 이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되어야 할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또한 신뢰하십니다.**

#### 모든 것의 의미

존과 헤더의 이 이야기는 평범하면서도 놀랍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신앙을 지니고 험악하고 좁은 길을 힘차게 나아가며 충실하게 성약을 지키는 전 세계 후기 성도들을 상징합니다.(니파이후서 31:19~20 참조) 존과 헤더는 교회에서 눈에 띄는 지도자 직책에 있지도 않았고, 총관리 역원과 인척도 아니며, 때로는 의심도 하고 두려움도 느끼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많은 점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 영원의 시간을 지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놀라운 방식으로 배우도록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와 다를 바 없는 존과 헤더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보다 겁을 먹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에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경험은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를 배우고, 살아가고, 어떤 존재가 되어 가는 과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일어났던 이야기이거나, 또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존과 헤더와 같은 용기와 영적인 관점을 지니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 보았거나, 겪고 있거나, 또는 겪게 될 것입니다. 어쩌서 어떤 사람은 영원의 교훈을 시련과 고통을 통해 배우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교훈을 구조와 치유를 통해 배우게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든 이유를 알지는 못하며, 모든 목적을 알지도 못하며,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니파이가 그랬듯이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니파이전서 11:17)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확실하고도 분명히 압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낳으신 아들딸임을 압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바로 행복의 계획을 지으신 분이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심을 압니다. 예수께서 무한하며 영원한 속죄를 통해 아버지의 계획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위해

“피흘려 고난을 받으신”<sup>2</sup> 구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앨마서 7:12) 도우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한 가지는 물려서지 않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 뜻에 삼키운 바”(모사이야서 15:7) 되게 하는 것임을 압니다.

비록 이러한 축복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축복이 실재한다는 것을 저는 증거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신앙으로 힘차게 나아간다면, 물려서지 않는 역량을 축복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

2013년 3월 3일 텍사스 대학교 알링턴 캠퍼스에서 열린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우리가 물려서지 ... 않[기를]”에서 발췌함.

주

1. 닐 에이 맥스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처사”,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22쪽.
2. “나사렛 예수는 구주며 왕”, 찬송가, 119장.

**필멸의 삶에서 배우게 될 많은 교훈은 경험을 하고 때로 고통을 겪음으로써만 배울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

# 청소년이 가르치도록 돕는다

**청** 소년은 가르쳐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제사의 의무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며 이 점을 밝혀 주셨다.

“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주며, 성찬을 베풀며”(교리와 성약 20:46; 강조체 추가)

바로 몇 구절 뒤에, 주님께서서는 교사와 집사도 가르치고 해설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20:58~59 참조) 사실 우리 청남, 청녀는 모두 때때로 가르칠 기회가 필요하다.

##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가르침으로써 얻는 유익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교사이셨다. 청소년들은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더욱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들은 또한,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선교사, 부모,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한다. 청소년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복음을 공부해야 하며 복음대로 생활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가르치기 위해 영을 동반해야 한다.(교리와 성약 42:14 참조) 결과적으로, 보통 교사로서 가르치는 청소년은 반원들보다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강한 간증을 얻는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얻고, 교수법을 익히며,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깨닫기 시작한다. 또한, 교사가 되는 것을 경험한 청소년은 더 나은 학생이자 반원이 되는 법을 배운다.

더불어, 배우는 청소년도 축복을 받는다. 청소년은 보통 친구가 가르칠 때 더욱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영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복음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동안 그들의 우정은 돈독해진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흔히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서로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 성인 지도자가 청소년의 성공을 돕는 법

청소년이 가르칠 때, 성인 지도자들은 청소년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성인 지도자들은 영의 인도에 따라 청소년에게 가르칠 것을 권유한다.<sup>1</sup> 청소년 중에 아직 가르칠 준비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 있다면, 지도자는 이러한 청소년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업을 일부만 가르칠 수 있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전체를 다 가르칠 수 있는 청소년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과에서 적어도 일부는 청소년들이 가르쳐 보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청소년들이 매 시간마다 모든 공과를 다 가르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반원이 많지 않은 작은 반에서는 지도자가 청소년에게 가르칠 것을 너무 자주 부탁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수업은, 특히 어려운 주제에 관한 수업은, 성인이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은 성인 지도자가 정확한 교수 원리를 시연하는 것을 관찰하고 볼 필요가 있다.

성인 지도자나 부모는 청소년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때, 최소한 한 주 전에 미리 수업 내용을 읽어 보게 하고,<sup>2</sup> 하나님 아버지께서



청소년은 가르쳐야 하고,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들은  
잘 가르칠 수 있다.

**청소년들은 가르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다**

최근에 나는 우리 와드에서 주일학교 12~13반을 교사 대신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열세 살인 아들 제이콥에게 가르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같이 수업을 계획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길 바라시는지를 알고자 기도하게 하며,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게 하고, 함께 가르치는 것을 연습하는 등으로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소년이 준비 과정에서 계시를 받으면, 지도자는 그들이 계시를 받았음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성인 지도자는 청소년 교사가 토론을 유도하고, 성신의 영감을 불러오며, 학생들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내도록 이끌어 줄 질문을 작성하게끔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지도자는 반원들이 계시를 얻을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청소년 교사가 질문 후 조용히 기다려 주는 법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

성인 지도자는 수업 중에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을 나눔으로써 어려움을 마주한 청소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줄 수 있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리라는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 지도자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지도자는 필요에 따라 교리를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성인 지도자는 청소년 교사가 힘들어하더라도 수업을 중간에 넘겨받지 않는다. 그러나 미리 자료를 공부하고 청소년 교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도울 수 있을지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보탬 준비를 할 수 있다.

제이콥은 전반부를 맡아서 동영상을 보여 주고, 주제와 관련된 경전 구절을 나누었으며, 깊이 생각해야 할 질문들을 했다. 그리고 반원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물은 뒤 그들이 성신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후반부를 맡아서 반원들이 서로 첫번째 시현을 가르쳐 보게 했다. 그리고 나서 반원들에게 가정의 밤에서 가족들에게 첫번째 시현을 가르치도록 권유했다. 수업을 마친 후, 우리는 이메일로 부모들에게 반에서 권유한 내용을 알렸다.

수업이 어땠는지를 묻자, 아들은 이렇게 답했다. “진짜 좋았어요. 저는 영이 함께했다는 걸 알아요. 반원들이 질문에 답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해내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청소년들은 가르쳐야 하며, 우리는 그들이 해내도록 도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간증은 자랄 것이며, 선교사와 부모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더 잘 준비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더욱 구주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

*teaching.lds.org/kor에서 새로운 교재인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을 통해 더 효과적인 교수 지침을 볼 수 있다.*

**주**

1. 아론 신권 정원회의 회장들은 다음 수업을 가르칠 청소년을 결정할 때 성인 지도자와 협의한다.(예를 들어,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8.3.2, 참조)
2. 계시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니파이후서 28:30) 오기 때문에, 최소한 한 주 전에 수업 내용을 읽어 두면 교사는 계시를 받을 여유가 생긴다.

#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본

# 여성의 삶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여성으로서의 제  
삶은 풍요롭고  
고결하며 대단히  
앞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샤론 유뱅크  
후기 성도 자선회 책임자

**여**러 해 전, 제 친구 내외가 가나의 시골에서 지도자 훈련을 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한 자매님이 친구에게 다가와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여성의 교회입니다.” 친구는 그 자매님에게 그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상호부조회가 있어서 우리와 가족에게 축복이 되는 영적인 것들과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옆방에서는 자매님의 남편께서 저희 남편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전이 있어서 세상을 떠난 제 자녀들도 영원히 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성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성의 교회입니까? 몇몇 흥미로운 예외 사항이 있었지만, 저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두루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답을 드리기보다는 단순히 세계 곳곳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들로 제 말씀을 뒷받침하려 합니다. 저는 학자도 연구자도 아니며 교회의 대변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여성으로서의 제 삶은 풍요롭고 고결하며 대단히 앞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성에 대한 교회의 교리는 여성을 제한하려 하지 않으며 여성의 역할에 대해 보수적이지도 않습니다. 가족, 교회, 공동체, 국가, 그리고 성전에서 여성이 맡은 역할을 비롯하여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관계를 이루고 함께 소통하는지를 다루는 교회의 교리는 오히려 제가 들어 본 교리들 가운데 가장 중립적이고 강력하며 합리적이고 활력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성이자 기독교인, 지성인이자 영원한 존재로서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있으며, 그것들은 또한 교회 안에서 그 교리를 실천함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여성들이  
 … 삶에서 의로움과  
 명료함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여성들이 좋은  
 면에서 세상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달라 보이는 정도에  
 따라 [세상의 훌륭한  
 여성들이 교회로 이끌릴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



### 하나님의 교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며, 하나님의 교리는 이중 잣대 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같은 무게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성별을 막론하고 외설물, 간음, 학대, 태만, 불평등, 억압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교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려 줍니다. 이 교리는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성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아들과 딸, 자매와 형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할 역할에 대해 이해를 밝혀 줍니다.<sup>1</sup>

십이사도 정월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처음에 예지로 존재했고, 하나님이 형제, 즉 영체를 주셔서 그분 영의 자녀, 곧 하늘 부모의 아들딸이 되게 하셨다고 밝혔습니다.”<sup>2</sup> 예지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교리와 성약 93:29 참조)

저는 여성입니다. 성별이 있기에 특성과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딸입니다. 이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누구인지를 규정합니다. 저는 신성한 부모님이 계시고, 딸로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성신을 매개로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sup>3</sup>

저는 자매입니다. 이 역할은 저는 기독교인이자 교회의 회원이고 복음 안에서 자매이며 제자라는 것과,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이끌겠다는 성약을 맺었음을 뜻합니다.

아마도 저는 이생에서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생에서가 아니라면 분명 다음 생에서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역할은 동등한 동반자로 선택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누구인지를 말해 줍니다. 부부는 다르지만, 아내나 남편이 지닌 은사와 특성의 조합은 그 사람 고유의 것이므로, 부부는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 보완하는 특성을 활용합니다. 인봉이란 말은 성전에서 신권 권세로써 맺어진 결혼 관계에 깃든 영원한 통합의 가능성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어머니라는 역할은 후손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지상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이든 다음 생애 동안이든, 성전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결혼이 인봉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가족이 약속됩니다.(교리와 성약 132:19 참조)

지상에서 우리의 교리는 유일하고도 특별하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일부입니다. 이 교리를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는 이 교리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영원한 관점을 선사합니다.

###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를 실천하는 곳

저는 제가 교회의 회원인 덕분에 지금껏 마련된 가장 좋은 발전 프로그램 중 하나에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여성의 개인적인 발전, 권한, 지도력과 같은 방대한 교육 과정이 단순히 회원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들을 할 때 주어집니다. 그 예로는, 지도력 발휘, 공개 연설, 의사 결정, 설득을 위한 토론, 예산 마련, 영향력 행사, 지역사회에서의 봉사, 읽고 쓰기, 조사나 탐구, 자원 개발, 원예, 식료품 저장, 가족 건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교리와 교리의 실천이 연결되지 않을 때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계시와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계시로써 우리는 수면 위로 드러나는 대부분의 오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와 선지자들은 우리가 언제나 믿어 왔던 개념들을 지속하여 명시했습니다.

- 십이사도 정원회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성전에 가서 둘 다 같은 [힘을 부여받는데, 그 힘은 다름 아닌 신권 권능입니다].”<sup>4</sup>
- 십이사도 정원회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는 여성이 신권 권세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신권 권세가 아니라면 어떤 권세이겠습니까?”<sup>5</sup>
- 제일회장단 제2보좌이셨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가족의 족장이며 모든 어머니는 여족장의 동등한 자격으로 그들만의 부모 된 역할을 수행합니다.”<sup>6</sup>

## 1. 큰 그림을 염두에 둔다

이제 교리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세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제공하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후기 성도 자선회의 책임자로 한 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중에 한 가지 긴급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슬람국가(IS) 무장 단체에 의해 이라크 모술에서 추방되어 쿠르디스탄으로 유입한 기독교 난민들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영국 성공회 목사 한 분이 자리를 다투듯 교회 뜰에 들어찬 5,000여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후기 성도 복지 선교사 부부가 쌀과 콩, 기름, 담요를 구매할 긴급 기금을 요청했고, 교회는 그들이 그날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즉각 요청에 응했습니다.

제 업무 탓에 저는 하루가 멀다고 그런 일을 처리합니다. 큰 그림을 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는 어떻게 해야 제 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자문하곤 합니다. 답을 구하기 위해 복음의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뜻대를 지나쳐 바라보는 것”(야곱서 4:14)이나 한 가지 질문 또는 관행에만 사로잡히는 것은 초점을 흐리게 하고 복음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부 청녀 회장 보니 엘 오스카스 자매님은 우리가 답을 구할 때 복음에 맞을 내린 굳건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느낀 것을 계속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신으로부터 [받은 느낌]에 진실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되, 그 과정에서 신앙을 지킵시다.”<sup>7</sup>

우리가 더 낫고 더 완벽한 방법으로 교리를 적용하는 법을 배움에 따라, 교회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바는 끝없이 변화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복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큼지막한 초석들이 갖추어져 있기에, 그만하면 우리가 신앙과 간증을 기르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 2. 반대에 맞서 신앙을 지킨다

반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반대가 우리를 강화하기도 한다고 믿습니다. 한번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마리노에 있는 헌팅턴 식물원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전시물에 달린 커다란 선풍기 팬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선풍기 팬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허리케인에 대비해 열대 수목들을 강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불어오는 무역풍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욱 유연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의 “무역풍”을 보내 주십니다. 그분이 보내 주시는 무역풍은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의 형태로 옵니다. 그런 어려움은 사실 선물과도 같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따온 다음 두 편의 짧은 글은 반대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 일화는 브리검 영이 1847년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던 당시의 이야기로,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불의한  
지배를 행사하기  
시작하고 온유, 사랑,  
순결로써 이끌 수  
없게 되는 즉시 성령은  
떠나갑니다.

**교리와 성약 121:37 참조**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어떤  
쟁기로도 땅을 팔 수가 없었다.  
[브리검 영]은 그곳의 토질도,  
계절도, 날씨도, 서리도,  
혹독한 겨울도, 해충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알지 못했다.  
[초기 탐험가인] 짐 브리저와  
마일스 굿이어는 이곳에 대해  
좋은 점을 한 가지도 꼽을  
수가 없었다. 샘 브래넨은  
캘리포니아까지 길을 계속 가기를 간청했다.  
브리검 영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는  
성도들을 이 뜨겁고도 겉보기에 황량하기  
그지없어 보였을 땅으로 이끌었다. 계곡에  
도착한 브리검 영은 서쪽의 소금 호수까지  
뻗은 이 광활한 땅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sup>8</sup>

다음으로, 윌포드 우드럽이 회고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회복의 초기에 선지자는 한 자리에 모인 몇몇  
지도자에게 그들이 마주할 광범위한 교리적  
지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많은 교회와  
가르침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와 왕국의 운명에 대해  
어머니의 무릎에 있는 아기만큼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sup>9</sup>

제가 이 두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들이 제 느낌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곳, 즉 올바른 장소에 있다고 해서, 혹은  
올바른 교리가 있다고 해서 눈이 멀도록  
소금만 가득한 땅과 검은 귀뚜라미 떼, 살을  
에는 서리와 고개를 가로짓는 반대론자들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올바른 장소이며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리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통해,  
그리고 신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머니 무릎에 있는 아기만큼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성장하고, 구할 때 기꺼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때, 우리는 오스카슨 자매님 말씀처럼  
“그 과정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 3. 성신을 구한다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간증을 얻는 핵심입니다. 성신은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으로 참된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린다 케이  
버튼 자매님은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답을 구하려면 올바른  
근원을 찾아갑시다. 선지자가 아니라 인터넷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협력을  
끌어내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질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인내하고 겸손하십시오.”<sup>10</sup>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사탄의 영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거짓을]  
간교하게 속삭이는 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 여러분과 저는 그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는 모든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공동의 적인 루시퍼입니다.”<sup>11</sup>

계시를 받는 것에 관해 이 경륜의 시대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경험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질문을 할 때에는 단합과 존중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을 가르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려면 성신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1839년, 조셉은 리버티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나니”

신권에 깃든 권능은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교리와 성약 121:36, 41) 유지되어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상호부조회에도 이와 유사한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온유, 사랑, 순결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선한 사람들의 눈에서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입니다.”<sup>12</sup>

조셉 스미스는 성신을 느끼고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온화함과 온유함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 말을 전한 것은 이것이 결혼 관계에서, 또한 교회에서, 동등한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불의한 지배를 행사하기 시작하고 온유, 사랑, 순결로써 이끌 수 없게 되는 즉시 (성령이 떠나가므로) 모든 권세와 신성한 권한은 효력을 잃습니다.(교리와 성약 121:37 참조)

### 여성이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교리 안에 있다

세상의 많은 여성이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이 지닌 힘의 목적을 이해하며, 가정을 일구고 충실하기를 바라는 남성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일전에 저는 핀란드를 여행하는 기차 안에서 영국인 무용수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신이 낫던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핀란드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종교를 믿는지 등의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믿음을 알게 된 그녀가 물었습니다. “답배도 술도 안 하세요? 혼전 순결을 지키신다고요?” 대화를 이어가다가도 그녀는 줄곧 이 주제로 돌아오며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기는 한가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녀가 결국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녀는 우리 교리에 관해 들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그녀와 만났던 일은 늘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저는 종종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의 유명한 말씀을 떠올립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교회의 주요한 성장의 많은 부분은 세상의 훌륭한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 교회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의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의로움과 명료함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여성들이 좋은 면에서 세상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달라 보이는 정도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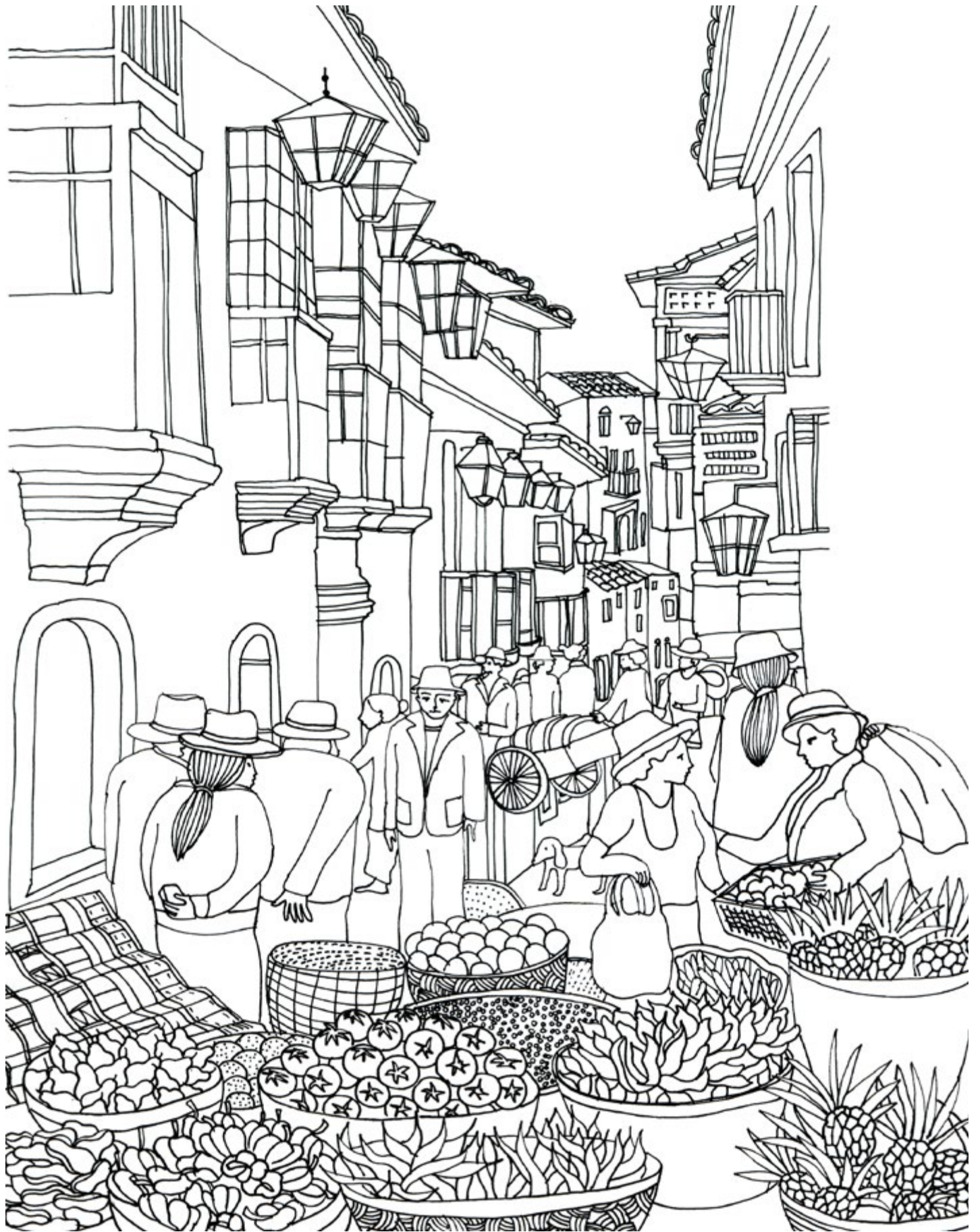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에 관한 교리는 제 마음속 가장 큰 소망을 대변합니다. 필멸의 회원들이 하나님의 교리를 실천하는 모습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 모습은 교리에 대한 응답이고 활기가 넘치며 소망과 선의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 중요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신약개조 1:9)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교리를 따르기로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교회는 여성의 교회입니까? 전 세계를 돌며 경험한 바만으로도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2014년 8월 8일, 미국 유타 주 프로보에서 열린 FairMormon Conference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함.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리야호나, 2015년 5월호, 52쪽.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29쪽 참조.
4. 엠 러셀 벨라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신권 권능”, 리야호나, 2014년 9월호, 36쪽.
5. 맬린 에이지 옥스, “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51쪽.
6. 제임스 이 파우스트, “예언적 음성”, 성도의 빛, 1996년 5월호, 6쪽.
7. Bonnie L. Oscarson, personal conversation with the author, July 21, 2014.
8. Gordon B. Hinckley, in James E. Faust, “Brigham Young: A Bold Prophet” (Education Week address, Aug. 21, 2001), 1, speeches.byu.edu.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137쪽.
10. Bonnie L. Oscarson, personal conversation with the author, July 21, 2014.
11. 제프리 알 홀랜드, “또 다른 탕자”, 리야호나, 2002년 7월호, 70쪽.
1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82쪽.
1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 222~223쪽.





진 알 쿡 장로

1975년부터  
2007년까지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함

# 잃어버렸던 경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19** 77년 7월 29일,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저는 제 임무 중의 일부로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선교부 방문을 마치고, 아내와 볼리비아 코차밤바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다섯 시간가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척 피곤했기에 몇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일어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적어 두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의 세 시간을 들여 여러 해 동안 고충을 겪고 있던 제 지역 선교부 내 몇 가지 조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영이 크게 넘치는 것을 느끼며 영감받은 생각들을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볼리비아 라파스로 떠났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체이스 얼리드 회장님 내외를 반갑게 만나 승합차를 타고 선교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희 짐과 제 서류 가방을 차 안에 넣어 놓고 승합차 문을 잠근 후, 얼리드 자매님은 한 장로에게 차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얼리드 회장님은 한 여성과 마주쳤는데 그녀의 남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그 여성을 진정시키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아내와 얼리드 자매님은 먼저 선교부 회장 사택으로 떠났습니다.

회장님과 제가 차로 돌아와 보니 차 안에 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선교부 회장 사택으로 짐을 옮긴 것으로 추측했으나, 그곳으로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차량 우측 앞쪽의 작은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혹시 짐을 도난당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부 회장 사택에 도착하자, 저희는 모든 짐을 실제로 도난당했음을 알았습니다. 옷을 잃어버린 것이 당장의 문제이긴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그날 코차밤바에서 받았던 영감을 적은 기록과 더불어 제 경전이 그 도난당한 서류 가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망과 분노, 무력감이 엄습했습니다.

짐을 되찾게 해 달라고 다 함께 기도를 드린 후, 저녁을 들며 기분을 바꿔 보려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경전은 제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제게 적어 주신 성스러운 글자가 새겨진 경전이었습니다. 저는 경전에 표시를 하고, 참조 성구를 적고,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가진 세상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한 가지를 고르라면 주저없이 그 경전을 택했을 것입니다.

엘리드 회장님과 상의할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전을 되찾도록 힘닿는 데까지 할 일을 다 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녁 식사 후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다시 한 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경전을 돌려받고, 그것을 흠친 사람들이 자기들의 불의한 행위를 알고 회개하도록 인도되며, 책을 돌려받는 일이 누군가를 참된 교회로 데려오는 수단이 되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저희는 도둑이 돈이 될 만한 물건은 가져가더라도 영어 책들은 버렸기를 바라며, 선교부 사무실 주변 지역과 근처 별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열 명 정도가 손전등을 들고 옷을 따뜻하게 입은 뒤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저희는 거리 여기저기를 다니며, 공터를 살살이 뒤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낙담한 채 선교부 회장 사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드 회장님과 늦은 밤까지 처리할 일을 마친

후, 다음 날 아내와 저는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키토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몇 주 동안 볼리비아에 있던 선교사들은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궁여지책으로 두 일간지에 사레금을 주겠다고 광고를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키토에 있던 저는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경전을 도난당한 후로는 경전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공부하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구절을 읽을 때마다 20년 동안 해 두었던 많은 참조 표시 중 몇 가지만 떠올릴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낙담이 되고 우울해서, 읽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전을 찾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기도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들도 3주 동안 이런 기도를 날마다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의 경전을 돌려주세요.”

약 3주 후, 저는 다음과 같은 영적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쿡 장로, 얼마나 오래 경전을 읽지도 연구하지도 않고 지낼 셈인가?” 그 말씀이 제게 강하게 영감을 주었으므로, 저는 겸손하고 유순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의 경전을 사용하여 구약 전서의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고, 아내의 허락을 받아 다시 한 번 표시를 하고 참조 성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8월 18일, 교회 직원인 엠 데이비스 형제가 라파스의 선교부 회장이 보낸 봉투를 들고 볼리비아에서 에콰도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 경전과 영감을 기록해 둔 공책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느낀 기쁨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인구가 70~80만에 이르는 도시 라파스에서, 주님께서 그 책들을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둑의 손에서 빼내셨는지, 한 쪽도 없어지거나 찢어진 곳이 없었고 심지어 때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시간과 경전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잘 활용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어떤 부인이 라파스의 수백 개 시장 중 한 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검은 책을 흔들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신교 신자인 그녀는 무언가 성스러운 것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강한 영적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남자에게 다가가 그것이 무엇인냐고



문자, 그는 모른다면서 그 책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것은 없냐고 묻자, 그는 또 다른 검은 책을 꺼냈습니다. 더는 없냐고 물으니, 그는 종이가 가득 담긴 폴더를 펴 보이며 태울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것들을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그는 50페소(한화로 약 3,000원)에 팔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이 왜 그 책들을 샀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책은 영어로 쓰였는데, 그녀는 영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책값은 그녀가 버는 월수입의 약 10%에 달할 만큼 비쌌기에, 영적인 느낌 말고는 책을 사야 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책 맨 앞에 적힌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 교회를 알아본 끝에 마침내 라파스에 있는 선교부 사무실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사례금에 관해 들은 적도 없고 그날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이 냈던 50페소조차 돌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장로들은 기쁘게 책들을 받고

사례금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자신이 성령 강림파에 소속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선교사들이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삼 년 전에 거리에서 집어 든 소책자에서 조셉 스미스에 관해 읽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선교사 토론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토론 후에 침례받기로 약속했습니다. 2주 후인 1977년 9월 11일 일요일 오후, 마리아 클뢰페 카르테나스 테라자스와 그녀의 열두 살 된 아들 마르코 페르난도 미란다 카르테나스는 볼리비아 라파스에 있는 지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경전을 잃어버렸을 때 느낀 심한 무력감을 그분의 손길이 역사하심을 보는 큰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24).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

자립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발전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는다. 다음 여섯 개의 기사에는 더욱 자립함으로써 축복을 받게 된 회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지진과 물 향아리

**내**가 생후 9개월 무렵, 젊은 부부로 세 아이를 기르며 뱃속의 또다른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던 부모님은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진도 7.5의 지진을 겪으셨다.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를 붙잡고 무작정 뛰셨다. 우리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신 부모님은 폐허가 된 현장을 바라보셨다. 아버지는 재빨리 피해와 손실의 정도를 가늠해 보셨고, 상수도로는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 물이 부족했으므로 집들이 무너지면서 뒤집어 쓴 먼지를 씻어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신 할머니는 두 개의 물 향아리에 깨끗한 식수를 채워 두셨다. 우리 가족은 긴급 지원을 받기까지 그 향아리 덕분에 물을 쓸 수 있었다.

충격이 가라앉자,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몇 구역 떨어진 곳에 사시는 할머니를 살피러 가셨다. 아버지가 무너져내린 할머니 집에 도착하여 집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그곳에는 할머니가 찰과상만 몇 군데 입으신 채로 앉아 계셨다.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잔해 속에서 무얼 좀 찾아 달라고 부탁하셨고, 잔해를 뒤지던 아버지는 신선한 식수가 담긴 커다란 물 향아리 두 개를 찾아내셨다. 그것들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지진이 있기 몇 달 전, 스펠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께서 전 세계 성도들에게 음식과 물을 보관하라고 지시하셨다.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던 할머니는 그 말씀을 따르셨던 것이다. 그 두 개의 물 향아리 덕분에 우리 가족은 긴급 지원을 받기 전 이를 동안 필요할 때 물을 쓸 수 있었다.

할머니께서 보여 주신 순종의 모범은 아버지의 간증이 되었고, 아버지는 훗날 복음으로 개종하셨다. 그리고 그 후 우리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받았다. 대비하라는 말씀을 믿고 따르신 할머니께 무척 감사하다. ■

리카르도 소사, 아르헨티나 산타 루시아



## 신체적 건강: 체중 감소와 지혜의 말씀

60대 중반이 되자 몸을 움직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내 몸무게는 135kg이 넘었다. 나는 기력도 체력도 부족했고, 심지어 상점에 최대한 가까이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증도 받았다.

이제는 체중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교리와 성약 89편을 펼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이 말씀이 진정 제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각 구절과 단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술과 차,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웠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지혜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지혜의 말씀이 건강을 위한 지침이란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지혜의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여겨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처음으로 정말 내 생활 방식을 바꿔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50주 동안 23kg을 감량하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

섭취하는 열량과 영양소를 모두 기록했고, 먹는 것마다 그것이 건강에 어떻게 이로운지를 조사했다.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수록 만족감도 커졌다. 그리고 식탐이 사라졌다. 무엇이 필요한지 몸이 아는 것 같았다. 전에 즐기던 해로운 음식들이 더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설탕을 끊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량 계산을 중단했고, 지혜의 말씀에 나오는 “땅속에서나 땅 위에 열매를 맺는 넝쿨의 열매”(교리와 성약 89:16)를 가리키는 식물성 음식을 섭취했다. 나는 목표 이상을 달성했다. 23개월 남짓 되는 시간 동안 몸무게의 절반 이상을 감량한 것이다. 옷은 치수가 12단계나 줄었다! 이제 감량한 체중을 3년째 유지하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고 느낀다. 더는 공복에 급격히 혈당이 변화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두통을 느꼈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약물을 복용할 필요도 없다.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 또한 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이바지했다.

무엇을 먹을지 조절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을 이겨 내는 과정이다.(모사야서 3:19 참조) 나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영적인 분별력도 향상되었다.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라”(교리와 성약 89:19)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지혜를 얻기 위해 즉석식품을 포기한 것은 훌륭한 맛바꿈이었다.

내 소박한 간청을 들어 주시고, 지혜의 말씀에 대한 식견을 넓혀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혜의 말씀이 계시로 온 것임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안다. ■

캐롤 이 울프, 미국 유타



## 취업: 변변찮은 살림, 그러나 큰 신앙

**아**내와 결혼할 당시 나는 실업자였다. 우리는 살림은 변변치 않았지만 큰 사랑과 신앙이 있었다.

마침내 직장을 구했는데, 일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 자리였다. 주님의 날에는 일하지 않겠노라고 그분께 약속한 터였으나 나에게서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도 있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과 맺은 그 약속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다음 주 일요일, 나는 “어서 오라 주일 아침”(찬송가, 150장)을 부르며 답을 얻었고 안식일의 중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정을 새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직장을 그만두었다. 우리는 주께서 돌봐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생활해 나갔다. 아내는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일했고, 우리는 첫 딸 사리아가

있었다. 한편, 나는 영구 교육 기금으로 전기 기계학 과정을 공부했다. 여전히 일자리는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내는 사리아가 태어나고 3개월 후에 직장에 복귀해야 했지만 사리아가 몹시도 엄마를 찾았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알고자 기도했고,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다. 경솔하게 보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내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쓸 수 있는 4개월짜리 실직 보험이 있었다. 그 후 주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되자 나는 계약직으로 일할 곳을 찾게 되었다.

둘째 딸 아만다가 태어날 무렵, 드디어 수습 기술직 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했다. 아직도 살림은 변변치 않았고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다. 당시 교회에서 직업에 관련된 자립 과정을

**주**님의 날에는 일하지 않겠노라고 그분께 약속했었기에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리라고 믿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제공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과정에 두 번 참여했다. 워낙 수입이 적어서 필요한 것만 충당하기도 빠듯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수습으로 일한 지 15개월이 지났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가 나타났다. 나는 이제 대형 쇼핑센터에서 전력 측정 기술자로 일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이 업계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다. 동료들은 모두 일요일과 휴일에도 일을 한다. 우리는 의료 보험도 있고 살림도 늘었다. 주님과 영구 교육 기금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주어진 몫을 다한다면, 주님도 주님의 몫을 다하실 것이며 우리가 자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

닌 산티아고 두아르테 나자레노,  
브라질 바이아 살바도르





## 재정: oats, bread, and soybeans

남편의 대학원 학비가 워낙 비쌌던지라, 우리는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러 곳에서 제안을 받았지만, 하와이에서 대학교수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고 보니 논의했던 것보다 봉급이 적었다. 정책이 변경되어 협상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새 일자리에 확신이 있었으므로, 일단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우리는 하와이를 사랑했고 남편은 직장을 마음에 들어 했다. 그리고 가족이 모두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학자금 대출 상환 문제가 모두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다. 신용 카드 회사로부터 기존 3%의 이자율이 14%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리는 납기일을 어긴 적이 없고 이미 많은 금액을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용 카드 회사는 강경했다.

우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운영했다. 지불해야 할 잔액을 단기 0% 금리인 다른 신용 카드들로 분산시켜 놓고 지출을 줄여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일곱 식구의 음식, 의복, 그리고 기저귀 예산을 대폭 줄이고 비축 식량으로 생활했다. 매일 아침에는 oats를 먹었고 점심에는 집에서 만든 빵을 먹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soybeans를 먹었다. 버터, 신선한 우유, 또는 주스 같은 호사를 누릴 수는 없었다. 십일조와 기본 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나머지 수입은 모두 신용 카드 대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우리는 대출금의 90%를 상환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수입을 사용하도록 기적 같은 방법들로 도와주셨다. 우리는 남은 부채를 신속히 상환할 수 있었고, 매우 감사했다. 딸아이는 아직도 매일 아침 oats를 먹어야 했던 일을 불평한다. 하지만 나는 십일조를 내고 선지자를 따름으로써 재정적으로나 현세적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알고 있다. ■

익명, 미국 하와이



그렇게 학자금 대출 상환 문제가 모두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다. 신용 카드 회사로부터 이자가 상향 조정된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많은 양을 비축하고 싶었던 남편과 나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살 여유는 없었기에 매주 식품을 구매할 때마다 조금씩 여분을 사기로 했다.

## 식량 비축: 통조림 치즈와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나는 결혼과 동시에 부지런히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했다. 많은 양을 비축하고 싶었던 남편과 나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살 여유는 없었기에 매주 식품을 구매할 때마다 조금씩 여분을 사기로 했다. 특히 통조림처럼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은 특가로 파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나는 조그맣게 쌓아 둔 통조림이며 건조식품 더미가 점차 불어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찬장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았다. 한번은 실수로 불쾌한 맛이 나는 통조림 치즈를 산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단단히 마음먹고 그 통조림을 매주 한 통씩 먹어 없었다. 상당한 양의 식량이 비축되자 우리는 비축된 것들을 먹기 시작했고, 하나를 먹으면 두 개를 채워 넣기로 결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찬장이 제법 가득 차자, 우리는 개와 고양이에게 들어가는 비축 물품들을 구매했다. 또한, 약초, 향신료, 진공 포장한 밀, 물, 청량음료와 함께 비누, 체취 제거제, 세제처럼 음식이 아닌 일용품들도 비축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는 집을 샀는데, 구매 절차를 완료하자마자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집을 잃지 않으려고 비축한 음식에만 의존한 채 거의 1년 남짓을 생활해야 했다.

식량 비축은 이제 일상적인 가사의 일부이다. 우리는 매일 식량을 비축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주님의 선지자들이 주신 영감 어린 권고의 말씀에 귀 기울였음에 매우 감사드린다. 그 덕분에 이제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안락한 우리 집을 둘러볼 수 있다. ■

이본 애스턴, 영국 채널제도

# 더 확실한 자립으로 향하는 길

여러분은 매일 자립을 향해 발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립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서술 내용에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

이 진단표 자체가 포괄적인 자립 지침 목록은 아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공부하고 함께 협의할 때 영은 여러분이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이 자가 진단을 마친 뒤에는 여러분이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분야에서 몇 가지 목표를 세워 보는 것을 고려해 본다.

## 준비

- \_\_\_ 1. 비상시에 쓰려고 따로 둔 현금이 있다.
- \_\_\_ 2. 우리 집에는 비상용품이 준비되어 있다. (예: 담요, 양초, 손전등)
- \_\_\_ 3. 중요한 서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나를 비롯한 가족이 그 보관 장소를 알고 있다.
- \_\_\_ 4. 정기적으로 여분의 음식과 물을 사서 저장하고 있다.
- \_\_\_ 5. 식품 유통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저장해 둔 비축 식량을 사용한 뒤 새로운 음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 육체적 건강

- \_\_\_ 1. 정기적으로 운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_\_\_ 2.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 적정량의 물을 마시고 있다.
- \_\_\_ 3.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있으며 주위 사람에게도 이를 권하고 있다.
- \_\_\_ 4. 해로운 물질의 중독을 피하고 있다.
- \_\_\_ 5.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동시에 지나친 수면은 피한다.

## 재정

- \_\_\_ 1.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돈을 모을 방법을 모색한다.
- \_\_\_ 2. 저축이나 투자 계좌에 정기적으로 돈을 예치하고 있다.
- \_\_\_ 3. 불필요한 빚을 지지 않는다.
- \_\_\_ 4. 정직한 십일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바친다.
- \_\_\_ 5. 내 소유물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한다.

## 교육

- \_\_\_ 1. (비)정규적인 교육 기회를 찾는다.
- \_\_\_ 2. 상급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장학금이나 영구 교육 기금과 같은 재원을 찾아본다.
- \_\_\_ 3. 나와 다른 시각이나 의견을 기꺼이 마주한다.
- \_\_\_ 4. 진리를 분별하고 배운 것을 잊지 않도록 영의 도움을 구한다.
- \_\_\_ 5. 매일 하는 복음 공부를 교육의 일부로 포함한다.

## 취업

- \_\_\_ 1. 세미나와 직장 내의 강좌를 통해 작업 능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_\_\_ 2. 타인들과 잘 어울려 일하며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 \_\_\_ 3. 구직 활동 전에, 내 이력서와 면접 기술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 \_\_\_ 4. 직업을 찾는 동안 기도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 \_\_\_ 5. 취업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

## 답변 점수

1=전혀 그렇지 않다, 2=간혹 그럴 때가 있다, 3=종종 그렇다, 4=대부분 그렇다, 5=항상 그렇다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 그리스도

**요** 한복음에는 경전을 통틀어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구주께서 우리의 죄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겻세마네 동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뇌를 겪으신 후에 일어났습니다.(교리와 성약 19:15~18 참조)

또한, 이 사건은 그분이 배신당하고 체포당하신 후에 일어났으며, 그분이 유대 지도자들의 손아귀에서 수모와 육체적인 학대를 겪으신 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구주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휘하에서 행동하는 로마 군인에게 짐승처럼 채찍질을 당한 후에 일어났으며, 그들이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후에 일어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행동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극심하기는 하나 보통은 목숨까지 앗아 가지는 않는 체형인 채찍질을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찌면 빌라도는 구주께 그와 같은 고통과 모욕을 가함으로써, 예수에게 이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교훈을

가르쳤고 공개적으로 본때를 보인 것이라고 유대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는 유대인들의 자비심을 일깨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리하여, 채찍질에 이어 빌라도는 대중이 보는 앞으로 예수님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아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요한복음 19:5~6)

저는 이야기의 나머지만큼 대단히 중요한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한 빌라도의 말에서 멈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클레이튼 장로와 그의 아내 캐시는 이번 기사와 다음 기사에서 구주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지닌 영원한 잠재력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는 구주의 능력에 관해서 간증한다.

# 안아 내린 뿌리



빌라도의 항변은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외양은 손상되어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또 그때 이후로도 남자나 여자 가운데 “보라”라는 말에 걸맞은 자격을 그보다 충실히 갖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완전했습니다. 그분께는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처럼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분은 완성된 형태의 모든 덕을 지니셨습니다.

구주는 모든 자제력을 갖추셨습니다. 감정과 느낌 또한 그분의 사고처럼 완벽했습니다. 이해력에 한계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진실로 모든 면에서 바라보기에 합당했으며, 시험받고 비견되고 숭배받을 만했습니다.

어느 면에서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보기에 합당하셨고, 그분만이 시험받고, 판단받고, 숭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실망을 안기는, 혹은 안길 만한 일말의 요소도 그분의 마음과 생각 및 감정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의 겉모습은 이를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풍성한 삶의 완전한 본보기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맨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통의 순간에 비친 그분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 53:2 참조) 주님은 내면 탓에 육신의 괴로움을 겪으셨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더없이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 존재의 실체가 그분이 하신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그분

실체의 장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며]” 우리가 보아야 했던 것은, 비록 그 당시에는 전혀 승리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악의 세력을 누르며 점점 위대해지는 그분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도 겪지 않을 가장 격렬한 폭풍의 중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평정이었습니다. 원수가 만든 온갖 끔찍한 수단들이 지금껏 그분께 동원됐었고, 이제 곧 또다시 동원될 참나였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복했습니다. 그분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평온한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물리적 요소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지배력을 의심할 여지 없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악한



영들을 다스리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했으며, 소경이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등 죽은 자를 소생시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빌라도와의 일이 있기 전날 밤,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와 고통과 병과 결함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바로 그 순간 자신을 확대한 자들의 죄를 위해서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생의 본보기이자 길을 보여 주고 또 길이 되도록 보냄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요한복음 14:6)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말로 부지불식간에 인생의 가장 높은 목적을 달성할 간단한 방법을 표현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구주를 보라고 했을 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구원[을] 완전케”<sup>1</sup>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주님을 그들과 우리에게 가리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라.”(엘마서 37:47)는 계명을 준 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할 점은 그분 덕분에, 그분이 하신 모든 일과 그분의 과거 및 현재 덕분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로]” 결심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타락한

기질과 결점에서 비롯된 결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죄와 영적 무덤덤함, 그리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실패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련하며, 아름답게 하고 결국에는 완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화평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풍성한 삶의 열쇠가 되십니다.

### 어린나무의 교훈

아내와 저는 언덕 위에 살고 있습니다. 언덕에는 즐참나무라는 수종이 자라고 있는데, 장대한 참나무와 달리, 이 즐참나무는 크게 자라는 법은 없지만 강인하고 멋진 나무입니다.

몇 년 전, 저희는 집 현관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화분을 갖다 놓았습니다. 형형색색의 꽃을 심은 그 화분이 있던 곳은 즐참나무 가지 아래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오자 즐참나무에서 씨앗, 곧 도토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몇 개가 그 화분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화분 속에 떨어진 도토리에서 어린나무 몇 개가 돋아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꽃 외에 다른 것은 화분에서 보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화분 속에 있는 흙에서 어린나무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뿌리는 흙 위로 드러나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서너 배는 길었습니다.

미국 유타의 여름은 강수량이 적은 데다가 뜨겁고, 겨울은 춥고 바람이 심하며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린 즐참나무의 깊은 뿌리는 재빨리 겉흙을 뚫고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땅속에 더 많이 노출되면 토양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얻기가

쉬워집니다. 또 깊이 뺨은 뿌리는 나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바람 속에서도 곧고 굳세게 서 있도록 단단히 지탱해 줍니다. 깊이 내린 뿌리 덕분에 즐참나무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어린나무의 키가 다 자랄 때까지, 뿌리는 계속 나무에 양분을 공급하고 나무를 보호하며 지탱해 줍니다.

우리는 즐참나무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경험합니다. 쉬운 때와 힘들 때, 성공과 실패, 건강할 때와 아플 때, 행복한 시절과 고뇌와 슬픔의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은 평탄하지도 녹록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지역과 나라의 문화와 전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영향력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를 고양하고, 어떤 것은 우리를 약화하고 저속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은 복음의 축복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하여 망가져 있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멋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끔찍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건강이나 부를 완전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전쟁이나 날씨의 영향을 미리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다양한 환경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깁니다.

그러나 나무와는 달리, 우리는 삶을 위해 어떤 형태로 영적인 뿌리를 성장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 그리고 토양 속으로 얼마나 깊게 뺨을지를

결정합니다. 매일 내리는 결정은 우리 신앙의 뿌리에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변화를 일으키며, 그렇게 생겨난 변화가 곧 기초가 됩니다.

### 구주 안에 내린 뿌리

우리는 어려움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또는 우리의 여름이나 겨울이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므로, 영혼을 위한 자양분의 유일하고 참된 원천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뿌리를 가능한 한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이 풍성하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그분께 나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23).

우리는 그분에 관해 배우으로써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 나갈 영혼의 힘을 키웁니다. 연구와 기도로 배웁니다. 의로운 모범을 보며 배웁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배웁니다.(마태복음 25:40 참조) 될 수 있는 한 모든 면에서 그분을 닮고자 애쓰며 배웁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귀담아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 경전 공부를 통해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성찬식과 성전에서도 듣습니다. “세미한 소리”(열왕기상 19:12)를 통해 그분 음성을 듣습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음성을 통해 그분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태복음 4:4)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우리의 뿌리를 강하게 합니다. 주의 깊게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이 걸으신 길을 따릅니다. 주님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그 길을 밝히는 빛이십니다.(요한복음 8:12 참조)

### 계명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뿌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은, 비밀스러울 것도 놀랄 것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의 뜻을 행하는 능력도 커집니다. 우리는 확신과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에 그렇게 하기가 쉬워집니다. 삶 속에 복음의 기초를 충실하고 끈기있게 적용하면, 주님은 내면의 힘을 키워 주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합당하고 사려 깊은 예배는 우리의 영적 뿌리가 깊어지는 데 중요한 이바지를 합니다. 경건하게 성찬식에 참석하여 참된 의도로 성찬을 취하면 안식일은 평범한 일요일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하[지]”(교리와 성약 20:77, 79) 않으면 우리는 진정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임에 앞서 자신을 준비할 때, 안식일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용서의 필요성과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에 대해 묵상하면, 예배당은 안식처로, 성찬은 성결하게 되는 시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에 갈 때 늘 가져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한 마음과 통화하는 심령입니다. 우리는 구주의 속죄에서 비롯되는 축복을 열심히 구하고 느끼기를 열망하며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늘 집에 남겨 두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운동, 일, 오락과 쇼핑에 관한 생각 등은 안식일이 아닌 날에 열도록 집안 서랍장에 넣고 잠가 두어야 합니다. 순전한 예배는 진정한 개종을 촉진합니다. 그런 예배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요한복음 4:14) 영적 저수지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골로새서 2:6~7)

우리가 개인적인 폭풍우나 가뭄을 겪지 않으면 우리의 나무는 강해질 기회를 절대 얻지 못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잔잔한 항해는 그 자체가 까다로운 시험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가슴을 저미게 하는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 신앙 안에 계속하여 거하[지]”(모사이야서 4:30)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괴로움을 안기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형편없는 선택을 하지만



않는다면, 대개는 인생의 문제들이 언제, 혹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게 할지를 직접 선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어떻게 거기에 대비할지를 날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다음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여호수아 24:15)

여기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13~14)

우리가 험착하고 좁은 길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다면, 신앙의 실패를 겪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와 하지 않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작지만 필수적인 믿음의 행위에 소홀해지면 우리의 뿌리를 약하게 하고,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님에게서 천천히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방식, 우리가 읽는 책이나 기사,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우리가 읽지 않거나 절대 보지 않는 것, 우리가 귀 기울이거나 되풀이하지 않기로 한 농담들, 이 모두가 우리가 서 있는 험착하고 좁은 길에서의 위치, 즉 그 길의

한가운데인가 아니면 가장자리인가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는 일을 면밀히 계획해서 더 나은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뿌리에 영양분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전은 험착하고 좁은 길의 한가운데에만 있습니다.

### 평안에 이르는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생활 방식, 평화와 나아갈 길을 찾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 삶을 천국처럼 만드는 권능을 지닌 유일한 이름입니다.(니파이후서 31:21; 모세서 6:52 참조) 구주가 지니신 것과 같은 구원 권능,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권능을



지니고 우리가 “바라볼” 만한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유다의 다음 말씀에는 구주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선택한 사람에게 결국 닥칠, 불가피한 공허함이 담겨 있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유다서 1:12)

어떤 어려움이라도 참고, 어떤 환난도 이겨 내며, 신앙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견디려면, 그리고 진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참나무처럼 되려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깊이 내린 뿌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또한 가장 감지하기 힘들고 보이지 않으며 교활한 적보다 더 오랜 시간을 견딥니다.

우리는 반석과 같은 힘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우리가 삶을 구속주 위에 세우는 것에 달려 있음을 힐라맨에게서 배웁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히라맨서 5:12) 이사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 영혼 안에 구주의 성품 중 무언가를 열매로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을 몇 마디 말에 담았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이사야 58:11).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덕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병 고침을 받고 정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경건하게 그분을 닮기를 기원합니다. 더욱 열심히 그분을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구속주의 반석” 위에서 안식할 때까지 구원의 토양 속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충성한 삶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



# 여러분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캐시 키프 클레이튼

영원히 변치 않는 여러분의 위상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몇**년 전, 우리 부부는 교회로부터 임무를 지명받아 막내아들과 함께 아르헨티나에 살았습니다. 아들과 저는 시간이 날 때 흥미로운 지역 명소를 방문하기를 특히 즐겼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태껏 보지 못한 놀라운 야생 동물원이었습니다.

동물 우리를 지나 돌아다니며 졸린 동물들을 먼발치서 바라보는 여느 동물원과과는 달리, 그곳은 관람객에게 우리 속에 들어와 동물을 쓰다듬어 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조련사를 따라 크고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심드렁한 사자들을 만져 보았습니다.

저는 조련사에게 어째서 그 거대한 맹수들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련사는 우리 안에서 같이 사는 작은 개 몇 마리를 보여 주었습니다. 사자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 사납게 짖어대는 개들은 사자들을 가차 없이 쫓아가 발뒤꿈치를 물기도 했습니다. 이 새끼 사자들은 구석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는 일에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개들이 무서워서 말입니다.

사자들은 다 자랐어도 두려움에 움츠리곤 했습니다. 사자가 한 발로 툭 치기만 해도 개 몇 마리쯤은 쉽게 날려 버릴 수 있을 법했지만, 정작 사자는 타고난 대로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풍당당한 자신의 실체와 잠재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서 자신감을 앗아가고 우리를 다른 의미의 구석으로 몰아 웅크리게 하는 그런 성가신 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신감 부족

많은 사람이 성공보다는 실패로 자신의 성과를 규정합니다. 만일 우리가 100개의 문항 중 80개를 맞췄다면, 자랑스럽게 80 문항의 답을 맞췄다고 말하는 대신에 20개나 틀렸다고 아쉽게 털어놓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 결여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볼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불완전한 지식

니파이는 구주의 어머니에 대한 시현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이해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알지 못함을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분명히 안다고 말했습니다.(니파이전서 11:12~17 참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성가신 조그만 개가 교회의 참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부주의 또는 태만

그릇된 선택이나, 바른 결정을 등한시하는 태도는 우리의 실체에 대한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하는 데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출애굽기 16:4 참조) 날마다 음식을 거두는 의무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참석하며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날그날의 만나입니다.

우리 혈관에는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딸이며 후계자입니다. 삶에서 여러분을 구석으로 몰고 움츠러들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믿음, 혹은 습관들을 모두 떨쳐 버리십시오. 이런 것들에 발꿈치를 물려 두려움과 상처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여러분의 위상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

2015년 9월 13일, 미국 뉴욕 시에서 열렸던 교회 교육 기구 말씀, “물 댄 동산 같겠고” 및 “고귀한 신분”에서 발췌함.





# 나를 구해 준 남동생

남동생 태너가 열두 살이 되자, 나는 함께 성전에 다니자고 동생에게 권했다.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의지가 될 것인지는 짐작도 하지 못한 채 말이다.

브리트니 앤 하먼

**아** 이다호 트윈폴스 성전이 헌납되었을 때, 나는 열두 살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언니가 자기 친구와 같이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지 않겠느냐고 내게 처음 물었을 때 나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른다.

삼 년이 지나 남동생 태너가 열두 살이 되자, 나는 날아갈 것만 같았다. 드디어 나도 태너에게 함께 성전에 다니자고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성전에 가는 날 아침이면, 우리는 서로를 깨워 주고 갈 준비를 했다.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할 때는 태너가 장난을 걸기도 하며 잠이 깨도록 도와주었다. 성전을 다니기 시작한

후로 우리는 시간을 내어 성전에서 느낀 점이나 생각을 나누기도 했다.

태너와 성전에 가는 날은 일주일 중에 최고로 영적인 날이었다. 정기적으로 성전에 방문하면서 우리는 우애가 더욱 두터워졌다. 그리고 이 돈독한 관계는 시련이 닥쳐올 때 상상 이상으로 큰 힘이 되었다. 그러다가 언니 두 명이 대학 진학으로 집을 떠났고, 마침 우리 와드는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 바람에 태너와 내가 우리 와드의 유일한 활동 청소년이 되었다.

태너와 나는 저활동 청소년들에게 전화를 걸어 교회



우리는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우리 말고는 활동 청소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터가 더 재밌다고 여겨지자 나는 상호 향상 모임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표준을 점차 낮추고 있음을 깨달았다.



너는 매주 내게 상호 향상 모임에 가자고 권했다.

모임과 상호 향상 모임에 초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려고 애를 써 보아도 오는 이는 아무도 없고, 내가 하는 노력들이 모두 부질없이 느껴지기도 했다.

부모님도 우리를 도우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우리가 풀이 죽어 있을 때는 간증을 나눠 주시고, 화가 나서 집에 돌아오면 답답함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래도 갑자기 교회 친구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내가 교회에서 유일한 청녀로 혼자 남게 되자, 교회에 가는 것이 점점 힘겹게 느껴졌다. 바쁜 학업 일정으로 우리의 성전 방문도 점점 뜸해졌다.

나는 경전을 읽으며 내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외로웠고 힘들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상황이, 그리고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늘 아등바등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 시기에 나는 시립 수영장에서 구조 대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교회보다 수영장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좋았다.

그곳 동료들은 모두 내 친구였고 늘 나를 반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상호 향상 모임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일터에 있으면 훨씬 즐거웠고, 그게 재정적으로도 내게 도움이

### 상호 향상 모임보다 일이 더 재미있었다.

되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상호 향상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이 별 대수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내가 표준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친구들이 욕설할 때 뭐라고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한 번도 입에 담아 보지 않았던 욕설이 내 입에서 불쑥 튀어 나왔고, 그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다. 어느 밤인가는 구조 대원 친구들과 어울리는 파티에서 적절치 못한 영화도 보았다. 정말이지, 끔찍한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었다.

그 무렵,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상호 향상 모임에 가지 않으니 태너는 얼마나 더 외롭겠냐는 말씀을 건네셨다. 태너는 매주,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상호 향상 모임에 갔던 태너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며 울며 집으로 돌아왔다.



태너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남동생과 함께 가족 역사 수업에 참석했다.



부지런히 교회와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하는 태너는 내게 강력한 모범이 되어 주었다.

“누나, 오늘 상호 향상 모임에 올 거야?” 하며 묻곤 했다. 상호향상 모임에 다녀오면 태너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내내 경전을 읽었다. 태너는 예전만큼 말을 하지도 않았다. 내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말만 던지고 자리를 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혼자 남겨진 기분이라며 태너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제야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교회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태너는 내가 필요했다.

태너는 혼자 교회 가족 역사 수업을 듣고 있었다. 나도 태너와 함께 그 수업을 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우리는 다시 성전에 더 정기적으로 가고 싶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조상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일요일에는 즐거이 공과를 함께 들었다. 교회 모임 후에는 같이 조상의 이름을 찾곤 했다. 성전에 우리 조상의 이름을 제출하는 작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그 이름들이 우리가 함께 찾은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며

신앙생활을 더욱 즐길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부지런히 교회와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하는 태너는 내게 강력한 모범이었다. 복음에 대한 간증은 가지고 있었지만, 태너는 내가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전에 대한 간증은 우리가 교회에서 더 굳건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간증을 얻도록 도와주었다.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성전에 대한 간증을 나누며 교회 안에서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왔다. 교회 청소년 모임과 상호 향상 모임의 참석률은 결코 더 좋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태너와 나는 힘써 앞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돕는 가운데, 더욱 강해지고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태너에게 성전에 같이 가자고 권유했던 것이 참 다행이다. 성전에 가는 것은 태너에게도 도움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은 나를 구조했다. ■

글쓴이는 미국 아이다호 주에 산다.

# 휴대 전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관심을 쏟으십시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확인은 잠시 미루어 두어도 괜찮습니다.



# 미래를 향한 도약

미리엄 베이  
교회 자립 지원 서비스

11세 소녀가  
트램펄린이라는  
한 가지 아이디어와,  
다른 이를 돕겠다는  
소망을 통해 자립과  
봉사에 관해  
큰 교훈을  
얻었다.

**11**세 어린이라면 대부분 학교와 집안일, 그리고 친구들과의 활동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하다. 하지만 멕시코 두랑고 주에 사는 알렉산드라 시는 여느 11세 어린이와 달랐다. 또래 친구들이 평범하게 하는 모든 일을 할 뿐 아니라, 알렉산드라는 직접 사업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소녀가 창업을 할 수 있었을까?

##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다

모든 것은 교회에서 자립하는 법에 대해 가르치는 모임을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알렉산드라의 귀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주로 18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이었지만, 알렉산드라는 그 그룹에 들어가기로 했다. 취업 또는 창업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겨우 초등학생에 불과한 알렉산드라가 정말 자기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보다 훨씬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까지 하는 것이 가능할까? 알고 보니, 알렉산드라와 같은 동네에 사는 교회 회원 중에는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데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이들이 많았다.

알렉산드라는 개설된 세 가지 과목 중 “창업 및 사업 확장” 그룹에 들어갔다. 교사에게 배우기보다는 진행자가 반을 이끄는 그룹이었다. 진행자는 그룹 구성원 중 한 명으로,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다른 구성원들을 돕고 토론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알렉산드라는 석 달 동안 매주 그룹 모임에 참석했다.

알렉산드라는 현재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립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다 동네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알렉산드라는 돈을 모아서 작은 트램펄린 하나를 샀다. 알렉산드라는 공공장소에 트램펄린을 놓아두고 대여해 주기 시작했다. 창업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 마케팅과 재정에 대해 배운 아이디어를 활용한 것이었다.

동네에서 트램펄린의 인기는 대단했다.





알렉산드라는 어떻게 하면  
학교 공부와 트램펄린 사업,  
진행자 역할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다.



### 일에서 오는 축복

“일하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일은 자부심을 키워 줍니다. 일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할 것입니다. ...

진정으로 자립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해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꿈을 위하여 (2011), 40, 41쪽.

###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여 얻은 축복

알렉산드라는 다른 면으로도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룹의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고, 결심한 것을 모두 지킴으로써 신임을 얻은 알렉산드라는 새로운 그룹의 진행자가 되었다. 보통은 18세 이상의 성인이 담당할 일이었다.

진행자가 된 알렉산드라는 여섯 명의 그룹 구성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다. 알렉산드라는 그룹 구성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 법을 파악하기 위해 매번 그룹 모임 전에 꼼꼼하게 자료를 공부했다. 알렉산드라는 새로운 역할을 진지하게 수행했다. 그녀의 아버지 다비드는 이렇게 말한다. “알렉산드라는 구성원들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거나 비디오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어떻게 하면 학교 공부와 트램펄린 사업, 그리고 진행자 역할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알렉산드라는 말했다. “하나님은 저를 진행자로 부르시며 축복을 주셨어요.” 알렉산드라가 받은 한 가지 축복은 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사랑이 있었기에 알렉산드라는 진심으로 그룹 구성원들의 성공을 바라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그룹 모임 때마다 구성원들은 공부한 내용을 사업에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것과, 자립 훈련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걸 알아요.”

적용하고 자신이 배운 복음 원리를 가족에게 가르치겠다는 주례 결심을 했다. 구성원들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거나 결석을 하면, 알렉산드라는 집으로 찾아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이 결심을 지키도록 힘을 주었다. 알렉산드라는 “그룹 구성원들을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말한다.

또한, 알렉산드라의 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복리를 어쩌면 그렇게 깊이 신경 쓸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으면 놀라울 정도예요. 자기가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굉장하죠.”

현재 끝벌반 청년인 알렉산드라는 근처의 다른 지역으로 트램펄린 사업을 확장하려고 계획 중이다. 알렉산드라는 자신이 더욱 자립하기 위해 배우고, 그런 뒤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자립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그룹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에게 벌써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커졌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봉사하고 싶어요.”

알렉산드라는 이러한 훈련 과정 덕분에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 반원들 모두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좋아요. 그분들의 형편이 더 나아질 거라는 걸 알아요. 사업도 나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셨고, 자립 훈련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걸 알아요.”

분명 알렉산드라에게 간증과 자부심, 그리고 타인에게 하는 봉사는 계속할 가치가 있는 일이 되었다. ■

LDS.ORG/GO/816320에서 자립 공과에 대한 내용을 더 찾아볼 수 있다.

## “교회에 저 말고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친구는 분명 소외감, 외로움, 또는 무력감을 느낄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우정으로 친구를 격려해 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다른 청소년과 친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친구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그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에 참여시킵니다. 또 친구들끼리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와드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모임을 제안합니다. 또한, 청녀 회장님께 말씀드리면 청녀 회장님 및 다른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신성한 가치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친구가 지닌 훌륭한 자질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 구주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이르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요한복음 10:14) 친구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친구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친구를 활동에 참여시키고 교회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경전을 읽고 기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 무엇보다, 항상 교회에 참석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성찬을 취하고 교회 모임에서 복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되새겨 줍니다.

여러분의 제안이 바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계속 곁에서 함께하며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 함께 더 강해지세요

친구가 다른 청소년에게 다가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세요. 우리는 혼자서도

강하지만,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나를 교화시켜 주고, 평생 버팀목이 되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사랑하도록 도와줄 친구가 더 많이 있다면,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왕국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스칼렛 엠, 16세, 칠레 카우틴

### 친구를 활동 모임에 초대하세요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 저는 혼자라고 느꼈어요.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기울인 청소년도 있었지만 말이죠. 저는 상호 향상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과 더 자주 대화에 참여했어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죠. 제가 하고 싶은 조언은 친구가 마음을 열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 활동 모임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면, 친구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페이스 오, 17세, 나이지리아 아비아



### 친구도 참여시켜요

저라면 교회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대화와 활동에 그 친구도 참여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 다른 좋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참여시키기 위해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구하면 다른 친구들도 이 친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되어 그 친구를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대화와 활동에 친구를 참여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레버 시, 14세, 미국 아이다호 주**

**그 친구가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와드를 옮겼을 때 똑같은 느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힘겨운 과정입니다. 친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친구는 자신감을 느끼고 두려움도 이겨 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중요한 존재입니다. 지도자와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도록 친구를 격려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말입니다.

**샤론 지, 14세, 멕시코 유카탄**

**파티를 열어요**

여러분과 그 친구가 주축이 되어 교회 친구 몇 명을 초대해서 파티를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 서로 알아가기가 더 좋습니다.

**트레이스 에이치, 13세, 미국 아이다호 주**

**도을 준비를 해요**

친구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가족에 속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고 그들과 교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이루어진 대가족 속에서 항상 서로 도움을 주고 힘을 북돋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세요. 우리는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같습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안나 카이코로도바 자매 선교사,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부**

**주님의 인도에 귀 기울여요**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도움 방법을 알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교회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 친구도 참여시킵니다. 계속 친구가 되어 주고 최선을 다하면 친구를 도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나스타샤 비, 18세, 미국 유타 주**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그 청녀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활동 모임과 봉사 활동에 그 친구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친구도 자신이 그룹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실족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친구가 절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깊고도



**진정한 친구**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말을 들어 주고, 방법을 보여 주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

간증하여 성신의 동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참된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참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역장단 제1보좌, “참된 친구”,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2쪽.**

영원한 사랑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느 날 잠시 한 쪽으로 비켜서서 어려웠던 시간들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24쪽)  
**에니퍼 에스, 18세, 페르난도 피, 18세, 우루과이 타쿠아렐보**

**다음 질문**

**“다른 친구들이 적절치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나 과도하게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 등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을(원할 경우) 2016년 9월 15일까지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로 (“작품 제출” 클릭)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표현의 정확성과 분량 조절을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티모시 제이  
다익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오직 하나님<sup>의</sup>

##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그분도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기치 않은 도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학한 지 얼마 안 되어 웅변 선생님인 저를 웅변대회에 참가하도록 지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우고 연습하고 경쟁하면서,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소중한 교훈을 많이 배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 주에서 주최하는 웅변대회가 열리기 4주 전, 선생님은 즉석연설 대회에 나가도록 제 이름을 막 제출했다고 태연하게 알리며, 첫째 날에 제가 7분짜리 연설을 최소한 세 개 이상 심사위원들 앞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연설 주제는 무작위로 배정되는 시사 문제였는데, 준비 시간이 불과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즉석연설을 본 적조차 없었기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은 몇 주 동안 준비를 하면서 시사 문제에 관한 기사를 가능한 한 많이 읽기는 했으나, 자신감도 부족했고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회 날 저는 진행 요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연설 주제를 이미 뽑았으니, 잠깐만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실제 연설을 몇 분간 들어 봐도 될까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뿐이네. 그 시간을 연설 듣는 데 사용하고 싶다면, 알아서 하게나.”

### 도움을 구하며

처음이었던 그때, 저는 들어가서 소중한 몇 분을 듣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내 연못 옆에 홀로 무릎 꿇을 수 있을 만한 한적한 숲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기게 해 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난관을 헤쳐 나가도록 성신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 기도에



년회에게 지행가 부총회장님은 그림의 일부. 셸리 레인, 삽화, 데이비드 허번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였고 사실과 느낌을 연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받을 때마다 저는 자리를 떠나 기도를 드린 후, 주제에 매달렸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다음 날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 신앙은 간증으로 발전했고, 그분을 가까이 느끼면서 신앙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자 하나님은 이제껏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니파이후서 25:23 참조)

제 직업은 이비인후과 의사였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미국 네바다 주 르노에서, 저는 미숙아로 태어난 연약한 남자 아기를 치료하는 소아과 중환자 팀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갓난아기는 태어나서 몇 달 동안 힘든 과정을 이겨 내고 충분히 건강해져서 부모와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집에 간 지 두 달 만에 왼쪽 폐에 심각한 감염이 있어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고단위 약을 투여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환자 전문의들은 아기가 삼킨 무언가가 폐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으나 어떤 것도 엑스레이 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아이를 수술실에 잠들게 한 후 저에게 폐를 들여다보도록 의뢰했습니다.

당시에는 유아의 작은 기도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아기의 왼쪽 폐에서 감염된 부분을 치료하려 애쓰다가, 저는 순간적으로 아이가 삼킨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밝은 노란색 크레용 조각이었는데, 그것이 달라붙어 있는 곳은 어떤 도구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기에 해  
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수술실에 있던 한 간호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좁은 곳에서 신장 결석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길고 가느다란 도구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제대로 사용하면 주변 조직을 손상하지 않고 작은 돌조각을 꺼내기에 딱 맞는, 가늘고 유연한 나선형 철사 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곳까지 집어넣는다는 말입니까?

**“저 혼자서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마취과 의사에게 잠시 어린 환자를 계속 맡아 달라고 부탁하고 수술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혼자서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하거라.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단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하거라.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단다.”

저는 여러 위치에서 손으로 철사 망 여닫기를 여러 차례 연습했습니다. 도구를 통해 가는 철사 망을 살살 크레용 쪽으로 밀어 넣은 후, 조심스레 조정한 끝에 그것을 크레용 너머로 보내어 망을 연 다음,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제 아기의 기도는 매끈하고 깨끗해졌습니다.

크레용을 제거하자 아기는 빠르게 회복하여 건강해졌습니다. 결국 밝은 노란색 기념품이 담긴 작은 용기를 갖고 그 주에 퇴원했습니다.

저는 마치 거룩한 손이 제 앞을 인도하시듯이, 실제로 신성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고와 인도에 대해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할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6)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합당성을 유지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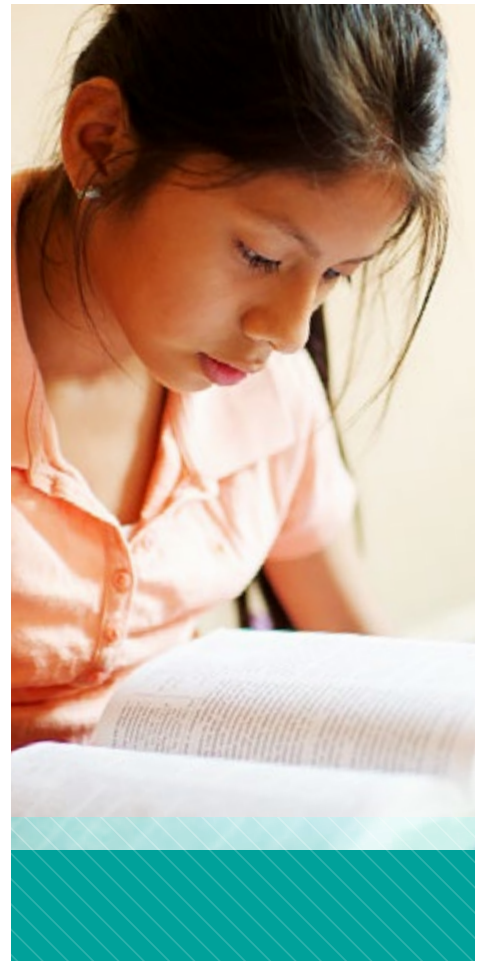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회의 도덕관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표준과 사회에서 말하는 표준에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지금은 둘 사이에 큰 골이 생기고 그 틈은 계속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화와 텔레비전은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상충되는 행태들을 수도 없이 내보입니다. 그런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은밀하고 적나라한 음란물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은 노래 가사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저속한 것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자부심을 떨어트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외설물과는 완전히 담을 쌓으십시오. 아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외설물에 극복하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술과 담배, 다른 모든 약물과 기타 이겨

내기 힘든 중독성 물질을 피하십시오.

무엇이 주위의 죄와 악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구주와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이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물몬경을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읽는다면 성신께서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물몬경이 참되다면, [물몬경은 실제로 참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참됩니다. 이런 간증이 아직 없는 분들은 간증을 얻는 데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간증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도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만의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간증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경전을 공부하여 간증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참석하십시오. 세미나리에 참석하십시오.

생활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행동을 멈추십시오.** 감독님과 상의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올바르게 회개한다면 풀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58:42 참조)

인류의 구주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릇된 개념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하십시오. ■

2011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 하나님을 찾아서



나는 세미나리에 처음 참석했을 때 느낀 것보다 더 평화로운 느낌을 강하게 느껴 본 적이 없었다.

이스마엘 에제키엘 플라코 알몬테  
**불** 과 여덟 살쯤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본성이 궁금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야고보서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는 약속이 담긴 성구를 읽어 주셨다. 이 말씀은 내 가슴을 채우고 마음속에 새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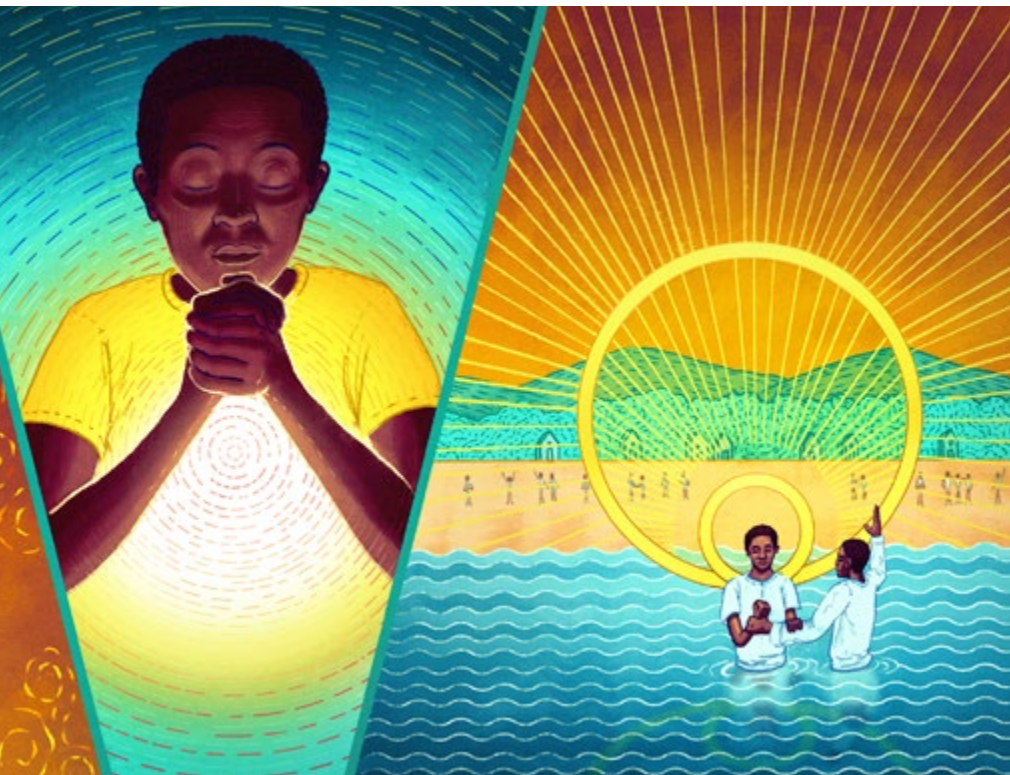
나는 내 방에 혼자 있게 되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알려 달라고 하나님께 여쭙며 기도했다. 나는 그분이 곧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가 바란 것을 해 주지 않으셨고,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아 슬펐다. 나는 알고 싶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다. 자라면서 나는 여러 교회에서 답을 찾을 기회를 얻고자 했으나, 그렇게 할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교회마다 서로 모순되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내 의문을 그저 얼버무리며 넘어가곤 했다.

몇 해가 지나자 나는 찾기에 지친 나머지 “답은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파티나 세속적인 여러 오락에 참여하는 등 현대의 일부 청소년들이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내 결정은 가장 옳은 결정이 아니었기에 매주 나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쁜 습관은 나를 늘 지지해 주었던 가족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소망이 생겼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경전에는 응답이 오리라는 약속이 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저를 좀 봐 주세요. 저 혼자 여기 있어요. 당신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떻게 당신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나에게 꼭 필요했던 바로 그때, 나는 마치 화산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가슴이 강하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 느낌이 내 질문에 대한 응답임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내 응답에 관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물었다. “이스마엘, 뭘 그리 생각하니?”

나는 당시 솔직히 대답하지 않았다. 해변을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아침에 해돋이를 보러 가고 싶었다며, 그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친구는 웃으며, “나는 못 가.”라고 대답했다.

“왜 안 돼?”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렇게 이른 아침에 뭘 하길래?”

친구가 대답했다. “세미나리.”

“세미나리라고? 세미나리가 뭐야?” 나는 그에게 물었다. 친구는 교회에서 하는 수업이라고 설명했다.

“교회 다닌 지는 얼마나 되는데?” 나는 놀라서 물었다.

“날 때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야.”

나는 가서 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 일이 내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마음속으로 알았다.

다음 날 다섯 시 반에 일어나 세미나리에 갔다. 매우 놀랍게도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도미니카 공화국 마탄시아에 있는 지부 건물에 들어갔을 때 느낀 것보다 평화로운 느낌을 강하게 느껴 본 적이 없었다. 그곳에서는 순수한 교리를 나누고 있었고, 그것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아온 영혼에게는 감미롭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내 마음과 가슴을 벅차게 했고, “진리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런 생각도 했다. “아, 날마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언제 다시 와도 되는지 묻자, 교사이신 친구 어머니는 수업 일정표를 주며 일요일 교회 예배에도 오라고 초대하셨다.

그때 이후로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섯 시 반에 일어나 세미나리에 갔고, 또 주일마다 교회에 갔다. 나는 빠질 수 없었다. 늘 찾아 헤매던 것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곳에는 나를 가르치고 침례를 줄 선교사가 없었다. 1년 반 후, 솔한 기도 끝에 선교사들이 도착하여 일주일 만에 선교사와 해야 할 토론을 모두 하게 해 주었다. 내가 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푸른 바닷물 속에 잠기던 순간이 생각난다.

나는 이제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며(에베소서 2:19 참조), 주님의 길, 즉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형제가 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글쓴이는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에 산다.



랜디 디 핑크  
장로  
칠십인 정원희

#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



**열**한 살이었을 때, 저는 미국 유타 주 맨타이에서 살았습니다. 그해 초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작고 멋진 손도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초등학교에 가장 잘 나오는 사람에게 이 손도끼를 상으로 줄 거예요.”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매주 초등학교에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끝날 무렵, 저는 그 손도끼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열두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집사에 성임되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가족은 미국 위스콘신 주의 매디슨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친구들이 그립기는 했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생각에 마음이 설렸습니다. 매디슨은 맨타이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새로 다니게 된 학교도 컸습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교회 회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인기 있는 아이들 몇 명이 저를 파티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는 교회 활동 모임과 같은 날 밤에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경험을 통해 제가 교회 모임에 충실하게 참석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초대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못 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파티 다음 날, 학교에서는 모두들 그 파티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파티에서 술을 마셔서, 그곳에 갔던 아이들이 모두 곤경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교회에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림 속의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빈칸을 채워 주세요.

1. “서로 \_\_\_\_\_ 하며”(에베소서 4:32)
2. “\_\_\_\_\_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태복음 5:9)
3. “너희가 너희 이웃을 \_\_\_\_\_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모사이야서 5:9)
4. “무엇이든지 \_\_\_\_\_ 사랑할 만하거나 혹은 듣기 좋거나 혹은 \_\_\_\_\_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개조 제13조)

저는 자라면서 초등학교와 다른 교회 모임에 참석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복음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활동 모임들은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것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유희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리와 성약 88편 63절에서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포함하여 교회 모임들에 참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교회에 있지 않거나 우리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결정을 인도할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생활할 때, 성신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1



2



3



4



왜 할아버지는  
게이지에게 빈 병을  
주셨을까?

# 침묵이 담긴 작은 병

레이 골드럽  
실화에 근거함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한복음 14:27)

게이지는 손에 든 오래된 빈 병을  
쳐다보다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았어요. 코르크 마개가 있는  
작고 흐릿한 초록색 병이었죠. 그 병은  
게이지가 침례받은 후 러셀 할아버지가  
주신 것이예요.

“이게 뭐예요?” 게이지가 물었어요.  
“병인 건 알겠는데 ... 안에 아무것도  
없는걸요?”

“허허, 가득 차 있단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게이지는 병을 흔들어 보았어요.  
“글쎄요, 제 눈에는 텅 빈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코르크 마개를 열고 작은 병을 게이지의  
귓가에 살며시 갖다 대셨어요. “들리니?”  
할아버지가 속삭이셨어요.

“뭐가요?” 게이지도 속삭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침묵 말이다.” 그런  
후 할아버지는 병에 코르크 마개를  
닫으셨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침묵이란

걸 찾아보기가 참 힘들지. 침묵은 약과  
같은 거란다. 한 방울 한 방울이 금과  
같이 소중한단다.”

게이지는 할아버지께 감사드린 후,  
그 이상한 선물을 집에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죠.

몇 주 후에, 빈스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게이지의 집 응접실은 많은 친척들이  
찾아와서 북적댔어요. 게이지는 침실로  
피해 방문을 달아 버렸죠. 복도 저편에서

부모님과 친척들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낡은 초록색 병이 보였어요. 게이지는 그 병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손바닥 위에 놓고 뒤집어 보았죠. 할아버지는 침묵이 약과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게이지는 빈스 삼촌의 장례식 후, 평안과 위안을 찾고 싶었어요.

게이지는 그 병의 코르크 마개를 열어서 마치 약간의 침묵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대고 거꾸로 부었어요. 게이지는 그 병이 정말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약간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게이지는 눈에 눈물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어요. 빈스 삼촌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겠죠. 재미있는 농담도 못 들을테고, 삼촌과 몸싸움을 하며 놀지도 못하겠죠. 게이지는 삼촌이 보고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 무언가 따뜻한 느낌이 마음속에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팠던 마음도 누그러들었죠. 게이지는 빈스 삼촌이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 냈어요. 그저 다음 세상으로 옮겨 갔을 뿐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계획 덕분에,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게이지는 언젠가는 빈스 삼촌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병을 손에 들고 있는 동안, 마음속에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그런 느낌이 들게 해 준 건 병이 아니라 성신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단지 그 병은 성신을 느끼려면 조용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게이지가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예요. 게이지는 그 병의 뚜껑을 닫고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다시 응접실로 갔어요. 게이지는 조용한 침실 밖에서도 마음속에 성신의 평안과 위안을 지닐 수 있었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삽화: 베키 펠버그

# 두 손과 마음, 그리고 미소

로라 굿리치  
실화에 근거함.

리 디아는  
엄마가  
출근 준비를  
하는 걸  
지켜봤어요. 엄마는  
예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워  
보였어요.

리디아는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그러자  
슬피졌어요.  
“저는 립스틱이  
하나도 없어요.”  
리디아가

말했어요. “그래서  
안 예뻐요.”

엄마는 리디아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사람을  
예쁘게 해 주는 것은  
립스틱이 아니란다.  
균건하고 친절할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예뻐지는  
거야.” 엄마가 말씀했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너는 균건하고 친절할  
마음을 갖게 되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도 균건하고





친절해지게 돼.

그리고 미소를 지을 때도  
굳건하고 친절하 거야. 미소를  
지으면 너를 보는 모든 사람까지  
행복해지거든.

굳건하고 친절하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해 준단다.”

리디아는 굳건하고  
친절해지고 싶었어요.

리디아는 할아버지를  
위해 두 손으로  
우편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마지막 초콜릿 쿠키는 사촌에게  
양보하기도 했어요.

새로 이사 온 친구와 함께  
놀 때는 마음속에서 사랑이  
느껴졌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금을 하는  
소녀에게 동전을 기부할 때에도  
마음속에서 사랑이 느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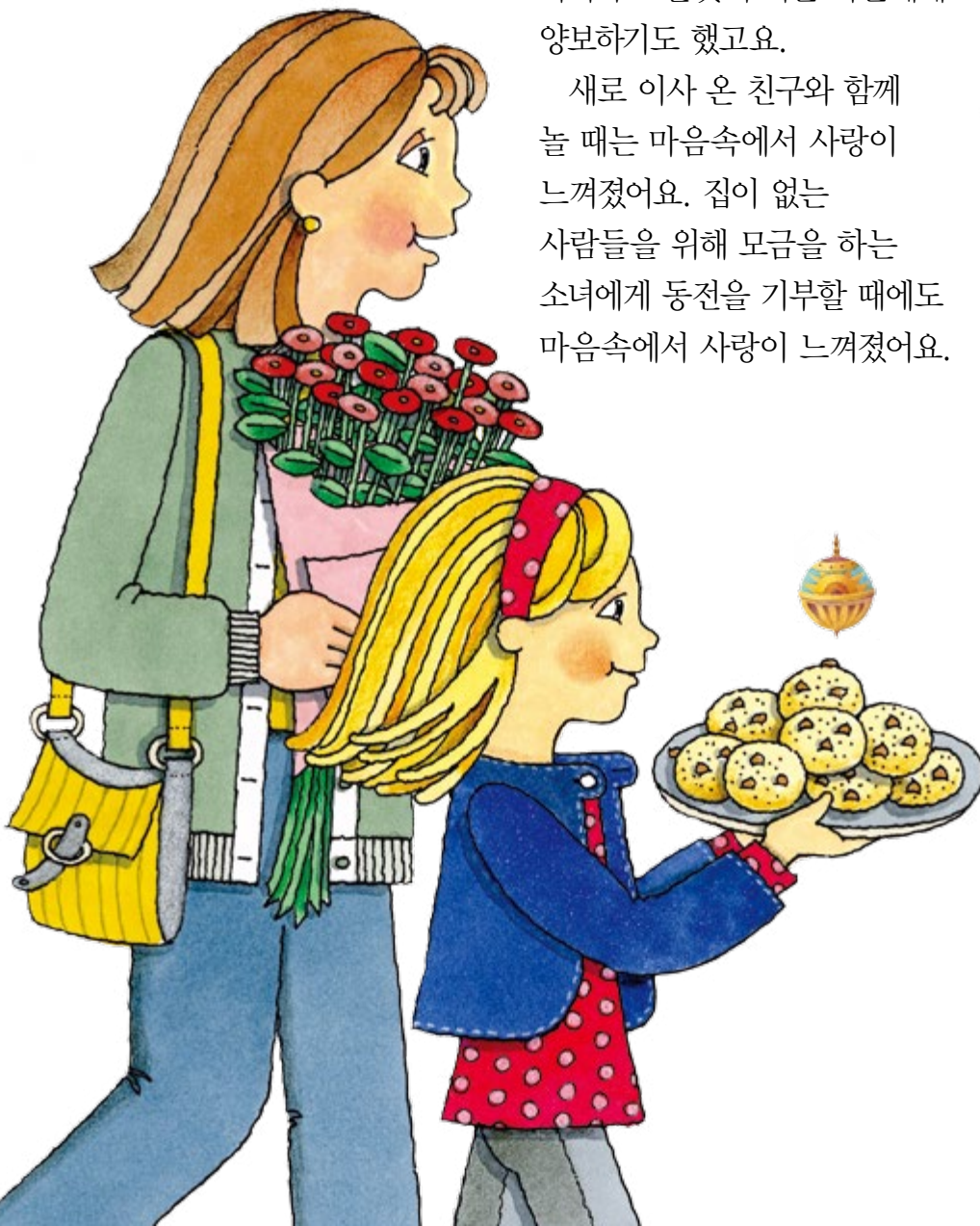


리디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도  
리디아에게 미소를 지어  
주었어요.

그날 밤, 리디아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더 굳건하고 친절해진 것  
같아요. 전 오늘 제 두 손과  
마음, 그리고 제 미소를  
사용했어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굳건하고 친절해졌구나. 그게  
예수님께서 내게 바라는  
모습이란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가족은 왜 중요한가요?



가족은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한 가족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우리들 이야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보살펴 주고 싶어 하시지요.

빅토리아 피, 10세, 브라질 연방구



저는 일곱 살이었을 때 한 가지 훌륭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참된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 봤어요. 그런 뒤 기도를 마치고 자려고 누웠죠.

자는 동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이 교회는 참된 교회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꿈을 꾸었어요. 잠에서 깨었을 때, 꿈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참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미란다 알, 9세, 멕시코 케레타로



저는 교회 회원이어서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친구이고, 저와 가족을 지켜 주세요. 저는 성전에 가는 것이 좋아요. 저는 가정의 밤과 초등학교를 좋아해요.

양헬 엠, 11세, 파나마 콜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소책자 안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성전의 모형 만들기로 했어요. 완성하는 데 일 년이 걸렸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열두 살이 되면 성전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뮤얼 오, 10세, 엔조 에스, 11세, 우루과이 리베라 주



##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도 우리들 이야기에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 그리고 사진을 나눌 수 있어요. 부모님의 허락과 함께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를 방문해서 “기사 제출”을 클릭하세요.

# 사무엘은 간증했어요

**사**무엘은 레이맨인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무엘에게 사악한 니파이인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니파이인들은 사무엘이 자신들의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벽 위에 올라섰죠.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무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전했어요.



한번은 간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하지만 막상 간증을 나누어 보니, 무섭지 않았어요.

체이스 시, 6세, 미국 애리조나 주



로런 피, 11세, 미국 유타 주



이 활동 카드를 잘라서 접은 뒤 보관하세요!



**사무엘**

## 나는 간증할 수 있어요!

- 힐라맨서 14장 8절을 외운다.
- 이번 한 주 동안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 [scripturestories.lds.org](http://scripturestories.lds.org)에서 몰몬경 이야기 동영상 중 제40장을 본다.
- 아래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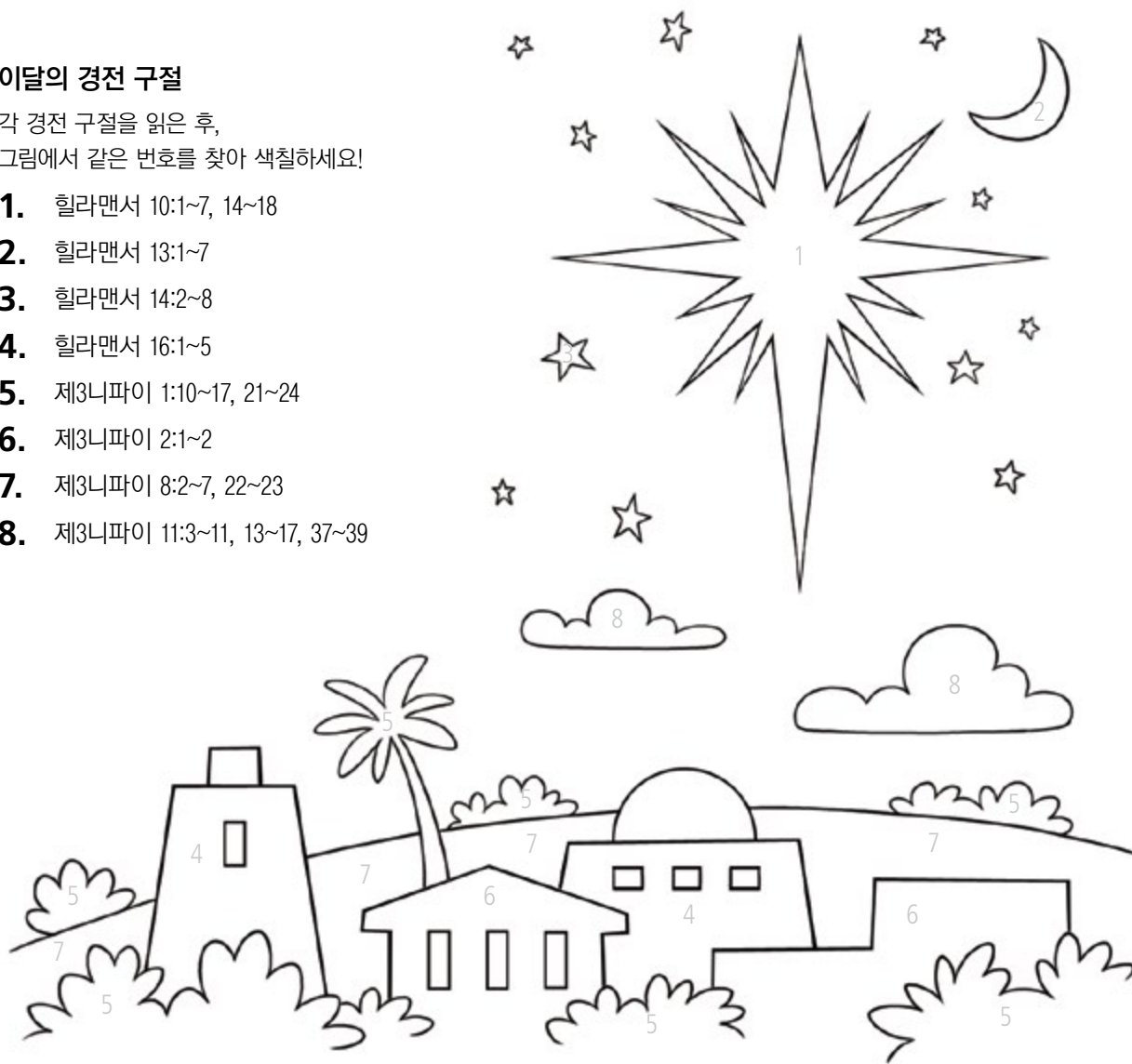
\_\_\_\_\_

나는 물몬경을 읽을 수 있어요

### 이달의 경전 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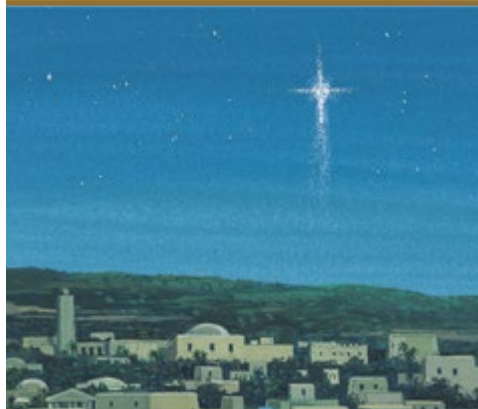
각 경전 구절을 읽은 후,  
그림에서 같은 번호를 찾아 색칠하세요!

1. 힐라만서 10:1~7, 14~18
2. 힐라만서 13:1~7
3. 힐라만서 14:2~8
4. 힐라만서 16:1~5
5. 제3니파이 1:10~17, 21~24
6. 제3니파이 2:1~2
7. 제3니파이 8:2~7, 22~23
8. 제3니파이 11:3~11, 13~17, 37~39



### 새로운 별

**사** 무엘이 니파이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태어날 것이며 우리의 구주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새로운 별이 뜰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사무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무엘의 말을 믿고 침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 책의 76~78쪽에 나오는 사무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호에 실릴 읽기 도전 과제도 기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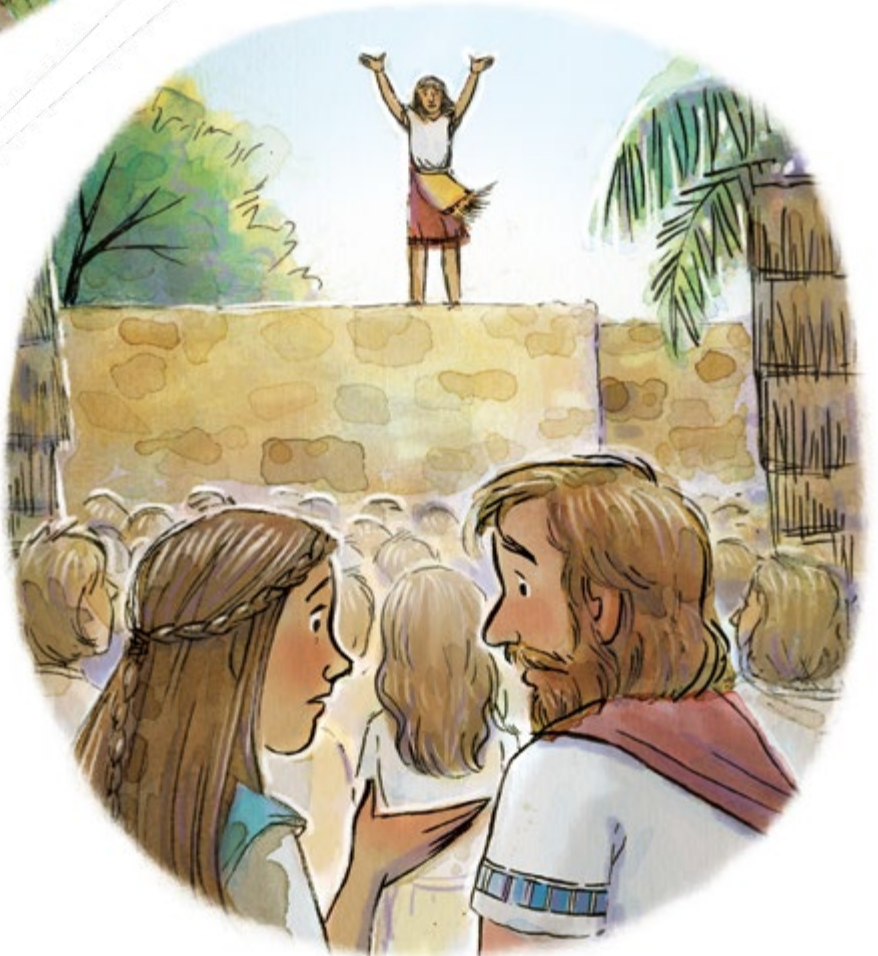
상화: 제리드 맥스틀랜드

# 예수님에 대해 가르친 사무엘



사무엘은 선지자였어요.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성벽 위로 올라갔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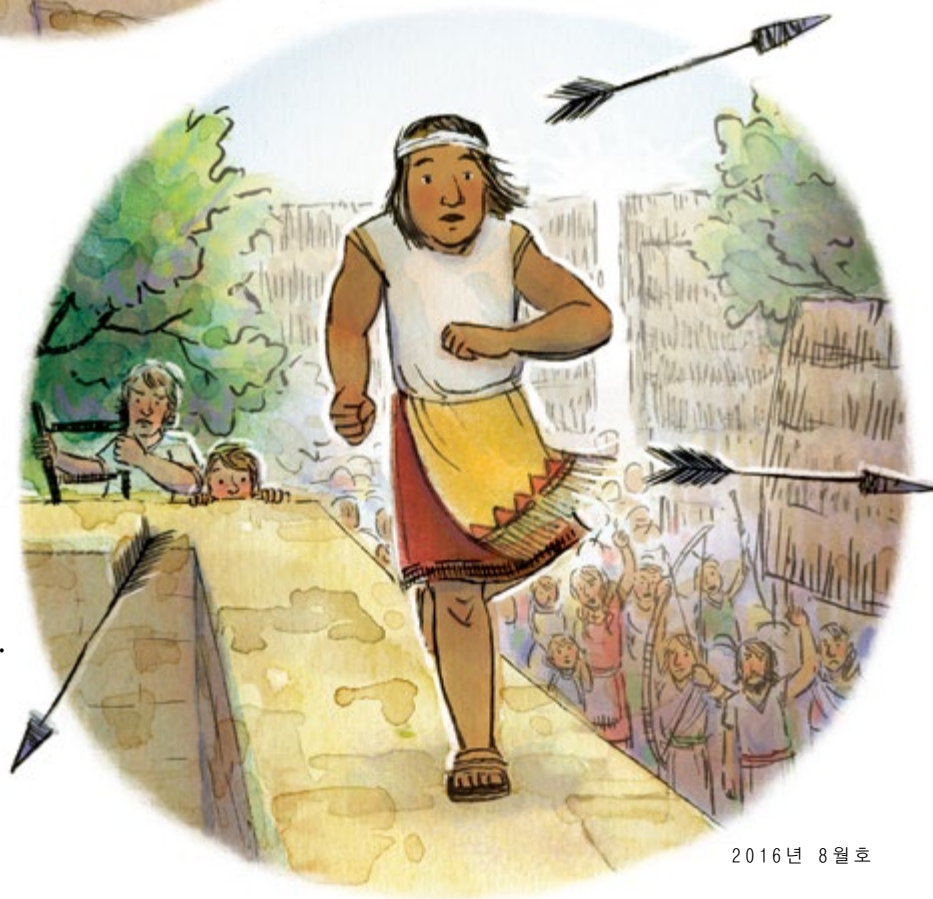
또한 곧 예수님이 태어나시리라고 가르쳤어요. 새로운 별이 빛날 것이며 밤새도록 하늘이 밝으리라는 것도요!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삼일 동안 어둠이 올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많은 성읍이 파괴될 것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화를 냈어요.  
그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았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다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무엘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도망쳤어요.





오 년 뒤,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하늘에는 새로운 별이 빛났어요.  
사무엘이 가르쳤던 그대로였죠! ■



# 나는 십일조를 바칠 수 있어요





매튜 카울리 장로  
(1897~1953)  
십이사도 정원회

##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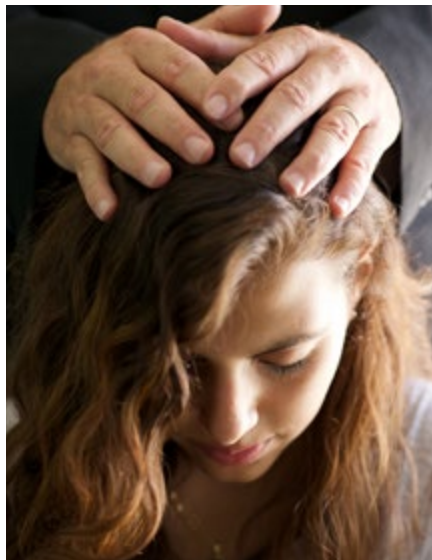
“장로님들을 좀 불러 주세요. 몸이 별로 좋지 않네요.”

**일**년여 전에, 한 부부가 어린 소년을 안고 저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틀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데려왔는데, 장로님께 가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어디가 아프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으며,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 심지어 다섯 살이 될 때까지 기어 다닐 수도 없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 나가지 아니하[겠군.]’(마태복음 17:21 참조) 저는 그 부모의 기도와 금식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카울리 형제님, 형제님이 저희 아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는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닥을 가로질러 공을 던지면 아이는 손과 무릎으로 열심히 공을 쫓아갑니다. 그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의 머리 위에서 박수를 치면 아이는 펄쩍 뿜습니다. 이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며 그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셨습니다. ...

하루는 뉴질랜드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한 성도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인에 대해 통곡하고 울며, 애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큰 집이라고 부르는 집 앞에 그 시신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때, 고인의 형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축복을 하게.”

젊은 원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분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도 하게나!”

... 그때 그곳에는 연륜이 깊은 충실한 마오리족 형제가 있었습니다. ... 좀 더 젊은 원주민이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 홀륭하고 연륜이 깊은 현자는 무릎을 꿇고 그를 축복한 후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장례를 준비하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놀라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장로님들을 불러주세요. 몸이 별로 좋지 않네요.” ... 우리는 그에게 방금 그를 축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 그랬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제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휘장이 다시 열리는 것 같았죠.” 그는 우리에게 그를 축복하라고 했던 그의 형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

하나님은 이러한 요소들 모두를 지배하십니다. 만일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손을 뻗어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의 지배 아래에 둘 수 있습니다. ■

*“Miracles,” New Era, 1975년 6월호, 39~44쪽에서 발췌함. 1953년 2월 18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사. 구두점과 대문자, 단락 구분은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대로 산다면, 내일과 그 후의 나날은 궁극적으로 훌륭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느끼진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람차고 풍성하고 영원한 삶이야말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비로운 계획의 목적입니다!”

#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 청년 성인



### 그리스도 안에 내린 뿌리

삶에 붙어닥치는 폭풍을 견디느라 힘겨운가? 클레이튼 장로와 자매가 우리 삶의 닳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는 방법을 제안한다.

42쪽

## 청소년

### 미래를 향한 도약

54쪽

사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과 트럼펫린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멕시코에 사는 열한 살 난 알렉산드라를 만나서 그에 관한 얘기를 들어 보자.



## 어린이



###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

66쪽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게 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